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8년 2월
석사학위 논문

어머니의 아동기 수용경험과 영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관계에서 부모성찰의 매개효과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최 아 영

어머니의 아동기 수용경험과 영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관계에서 부모성찰의 매개효과

The Mediation Effect of Parent Reflec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Experiences During Childhood and Toddler's
Mother'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2018년 2월 23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최 아 영

어머니의 아동기 수용경험과 영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관계에서 부모성찰의 매개효과

지도교수 오 지 현

이 논문을 상담심리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최 아 영

최아영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 수 김택호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 수 오지현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 수 정승아 (인)

2017년 11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I. 서론.....	1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B. 연구문제.....	6
II. 이론적 배경.....	7
A.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과 영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과의 관계.....	7
1.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	7
2. 영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8
3.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과 영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과의 관계.....	10
B.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과 부모성찰과의 관계.....	12
1. 부모성찰.....	12
2.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과 부모성찰과의 관계.....	15
C. 부모성찰과 영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과의 관계.....	17
D.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과 영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관계에서 부모성찰의 매개효과.....	19
III. 연구방법.....	21

A. 연구대상.....	21
B. 측정도구.....	22
1.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 척도.....	22
2.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척도.....	23
3. 영유아기 부모성찰 척도.....	24
C. 연구절차.....	25
D. 자료분석.....	26
IV. 연구결과.....	27
A. 연구변인들의 기술통계 분석.....	27
B. 연구변인들의 상관관계 분석.....	28
C. 측정모형 타당도.....	29
D. 연구모형 검증.....	31
E. 매개효과 검증.....	33
V. 논의 및 제언.....	34
A. 결론 및 논의.....	34
B. 제언.....	36
참고문헌.....	38
부 록.....	50

표 목차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2
<표 2> 어머니 아동기 경험 척도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23
<표 3>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척도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24
<표 4> 부모성찰 척도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25
<표 5> 어머니의 아동기 수용경험 및 영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부모성찰의 기술 통계..	27
<표 6>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28
<표 7>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29
<표 8> 요인부하량.....	30
<표 9>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	31
<표 10>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비교.....	31
<표 11> 연구모형의 경로계수(최종모형).....	32
<표 12> 변인들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및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33

그림 목차

<그림 1> 가설모형.....	6
<그림 2> 확인적 요인분석.....	30
<그림 3> 최종모형(부분매개모형).....	32

APSTRACT

The Mediation Effect of Parent Reflec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Experiences During Childhood and Toddler's Mother'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Choi A Young

Advisor : Prof. Oh Ji-Hyun, Ph. D.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study examined the mediation effect of Parent Reflec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Experiences During Childhood and Toddler's Mother'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comprised 322 mother. The mother completed questionnaires on their experiences during childhood, mother'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parent reflection. Data were analyzed by SPSS 23 and amos 24.

The research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frequency analysis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nd each measure was calculated by the Crown's alpha's alpha factor to confirm the reliability of the measures used in the study.

Second, the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to confirm that the data was likely to be checked and that the variables met the normal distribution assumption.

Third, a personalization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confirm the correlation between experiences during childhood and mother'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parent reflection.

Fourth, a measure was taken to verify that the variables were employed in determining the potential variables of the variables, and identify the suitability and factor load.

Fifth, the adequacy of the research model was verified compared to the

competition model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research model. Typical criteria for assessing conformity were the absolute conformance index, the GFI, the TLI, the IFI, and the CFI, which were the appropriate criteria for the conformity assessment.

Sixth, we identified that the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and gross effects of the final model were meaningful, and the indirect effects were used to verify that the indirect effects were meaningful.

In conclusion,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discussed.

I. 서론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좋은 부모가 되고자 하는 예비 부모들이 늘어남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많은 관심을 보이며 그 관심의 정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지식을 습득하거나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부모가 되는 준비를 한다. 특히 영유아기 부모는 새롭게 주어진 부모의 역할을 파악하고 수행하는 것을 어려워하며, 실제로 이 시기에 많은 부모가 부모-자녀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영유아기 자녀를 학대하는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드러났는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건강한 부모역할을 돕는 부모교육의 제도화를 검토하고 영유아기 부모의 심리사회적 지원책을 강구한다(박세환, 2016).

자녀를 출산함에 따라 가족은 2인 체계에서 3인 체계로 변화된다. 부부 역할에 부모 역할이 추가됨에 따라 변화된 역할에 시간과 에너지를 잘 분배할 수 있도록 재협상 과정이 필요하게 된다(김진숙, 김지은, 연미희, 이인수, 2017). 특히 부모-자녀관계를 통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상을 형성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사회화의 기초를 형성하는(Erikson, 1950) 영유아기 시기는 인성발달, 지적발달, 신체발달 등 자녀의 인격이 형성하는 데 있어 부모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Hoffman, 1975). 영유아기 자녀는 기쁨, 즐거움, 행복함 등의 긍정적 정서와 두려움, 분노, 혐오, 슬픔 등 부정적 정서를 경험한다(박성연, 이은경, 배주희, 2011). 이러한 자녀의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은 영유아기 자녀의 정서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 중에서도 부정적 정서가 특히 주목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부모가 자녀의 긍정적 정서보다는 부정적 정서를 표현할 경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Siegel & Hartzell, 2004), 부정적 정서가 긍정적 정서보다 조절에 있어 정서사회화에 관한 풍부한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Dunn, Brown, & Beardsall, 1991; Fabes, Poulin, Eisenberg, & Madden-Derdich, 2002).

현재의 자신(self)은 과거부터 누적되어 온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다. 부모가 되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원부모와의 경험들을 지금-여기 현재로 가지고 와서 자녀를 양육하게 된다. 이렇듯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부모의 심리적 특성 혹은 부모의 아동기 경험과 같은 개인적 특성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장영심, 조영숙, 2014), 그 중에서 부모의 아동기 경험이 특히 주목받고 있다(전현진, 박성연, 1999;

Simons, Bearman, Conger, & Chao, 1993).

어머니의 아동기경험과 자녀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오지현, 2016; 이미영, 이현옥 2015; 장영심, 조영숙 2014; 권영임, 2011; 성미혜, 주경숙, 2007; 이진선, 정문자, 2007; 전효정, 2003; 정혜승, 2000; 김지신, 박성연, 1997; 전현진, 1996; Fincham, 1994; Belsky & Vondra, 1993; Hazan & Shaver, 1992; Simons, Whitbeck, Conger, & Melby, 1990; Sroufe, 1988; Belsky, 1984)에 의하면, 원부모와 어머니의 양육경험은 세대 간 전이를 통해 이후 부부 관계나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영향을 준다. 다시 말해, 원부모로부터 받은 아동기 경험이 독립성을 고무 받고 수용된 경험이 많은 어머니의 경우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며(권영임, 2011; 이진선, 정문자, 2007), 원부모로부터 받은 아동기 경험을 부정적이며 부당하다고 지각하고 있는 경우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김은경, 송영혜, 2009; 채진영, 이강이, 2009; 이순형, 이옥경, 민미희, 2006; 정미경, 김영희, 2003; Sroufe, 1988; Epstein, 1983).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모를 권위주의적이고 거부적으로 회고한 어머니는 우울증세가 높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 또한 부적응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Plantés, Prusoff, Brennan, Parker, 1988). 이는 아동기의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해 우울증에 빠질 위험성이 증가하여 우울성향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울성향이 심한 어머니의 경우 주변 상황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는 느낌과 더불어 무력감을 가지게 된다(Maier, Seligman, 1976). 이로 인해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과민해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부정적 정서에 대해 처벌하거나 최소화하는 등 비지지적 반응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아동의 부정적 정서 표현을 중단시키려 할 수 있다(정윤주, 2006). 반면, 어머니가 원부모의 양육방식을 수용적으로 지각할수록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감정을 존중, 수용하고,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끌며 행동에 한계를 정해주는 감정코칭 반응을 많이 사용한다(오지현, 2016; 2014). 상기된 바를 요약하면,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이 수용적일수록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감정코칭 반응과 같은 지지적 반응을 사용하고, 거부적일수록 우울성향이 증가하여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처벌적 방식을 사용하거나 신속하게 중단하는 등의 비지지적 반응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부모가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어머니의 양육행동 뿐 아니라 자녀를 양육할 때 지향하는 신념이나 사고와 같은 어머니의 인지적 특성(이인학, 박지은, 최성열, 2010; Gottman, Katz, & Hooven, 1997; Hannah, 2014;

McGillicuddy-De Lisi & Sigel, 1995)이 주목되고 있다. 어머니가 양육에 대해 어떤 생각과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가 자녀의 양육과 자녀와의 상호작용의 방식을 결정하는데, 자녀의 정서에 대해서도 어머니는 고유한 신념과 가치관을 가지게 된다. 이렇듯 부모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 자신에 대한 탐색 및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자녀와 관계에서 어떠한 부모역할하며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지각 역시 중요하다(정옥분, 정순화, 2008). 이러한 개인 내적인 심리상태를 이해하는 것은 타인과 관계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며, 유아와 부모 간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부모의 양육태도 및 자녀와 관계 변화에 중요한 의미를 준다(Fonagy et al., 2002; Fonagy, 2010). 즉, 부모의 내적인 심리상태를 이해하는 자기성찰 능력은 자신의 양육 경험을 이해하도록 하는 개인 내적인 능력과 더불어 개인 간의 관계에서 정서를 조절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Fonagy et al., 2002), 부모가 자기성찰을 통해 자신을 인지하는 것은 스스로 감정을 조절 및 통제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유아도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다(Fonagy et al., 2002; Slade, 2006). 하지만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정체성이므로 부모성찰을 부모의 자기성찰이란 개념으로 국한하여 규정하기엔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부모성찰의 개념에는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부모자신을 이해하는 것과 더불어 자녀의 내적상태를 이해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부모자녀 관계에서 긍정적인 행동변화를 불러올 수 있어야 한다(Allen & Fonagy, 2002).

이러한 부모자신과 자녀의 내적상태를 이해하는 데 있어 원부모와의 경험은 중요하다. 원부모와의 양육경험에 의해 내적작동모델에 따라 부모로서 자신의 기대역할이 내면화되고, 동일시 과정을 통해 어머니역할을 학습하게 된다(이미영, 이현옥, 2015). 이는 대인관계에서의 지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될 뿐만 아니라(Bretherton, 1985; Main, Kaplan, & Cassidy, 1985), 이후 자녀와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Bowlby, 1971; 1973). 이에 애착이론의 원리(George & Solomon, 1999)에서는 아동기에 부모와의 경험은 부모역할과 자녀역할에 대해 형성된 내적표상이 성인이 되어 자녀를 두게 되었을 때 부모로서의 자아를 인식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려는 심리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대상관계이론에서는 초기 중요한 대상과의 관계에서 발달한 정신표상은 모든 인지적이고 정서적인 노력의 기초가 되는데(Blatt et al., 1988), 이는 성인이 되어 자녀를 두게 되었을 때 부모로서의 자아를 인식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한다(George & Solomon, 1999). 이와 같이 원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된 정신표상은 우리는 우리의 사고를 결정하게 되고, 원부모와의 거부적인 경험으로 인해 생긴 정신표상은 자녀를 부정적인 생각 속에 가둬버리게 된다. 그렇기 때

문에 어린 시절의 경험을 탐색하고 성찰하여 내가 나고 자란 원가족과의 경험이 현재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은 어머니의 정서표현에 대한 신념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정윤경, 박혜진, 2012)에서 인지적 요인의 중요성이 지지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부모성찰은 영유아기 자녀와의 애착관계와 부모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모의 인지·심리적 요인이다. 부모성찰은 긍정적 양육행동에 선행하는 주요변인이며(Slade et al., 2005), 자신의 정서를 조율하도록 도와 자녀와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한다(김미정, 2014; 박혜근, 2015; 최해훈, 2015; Fonagy et al., 1991). 뿐만 아니라 부모의 자녀발달에 대한 신념은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자녀의 발달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전경숙(1992)은 부모의 신념을 아동의 행동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인이라고 하였다. 즉, 부모가 지닌 신념에 따라 자녀에게 기대하는 바가 달라지며 부모의 기대가 달라짐에 따라 자녀의 발달을 지원해주는 방향이 달라지고 궁극적으로 보면 부모가 지닌 신념에 따라 아동의 발달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Baumrind(1971)에 의하면 민주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는 부모는 자녀에게 따뜻하고 애정적이며 자녀의 요구에 민감하고 반응적인 태도와 명확한 한계를 설정하여 양육하는데 반해, 권위주의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녀의 요구에 둔감하고 완고하며 통제에 있어 직접적인 명령이나 금지 등의 방식으로 양육한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심리상태는 자녀의 기질을 인식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 부정적인 경험에 의한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경우 부정적 정서를 상대적으로 더 지니고 있는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를 더욱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로 여길 수 있으며, 이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장유진, 이강이, 2014). 반대로 어머니의 심리상태가 안정적일 경우 까다로운 기질의 자녀를 잘 다룰 수 있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반응적이며 민감한 반응으로 이어짐을 의미한다(Mertesacker, 2004). 다시 말해, 어머니가 자녀에 대해 어떤 기대와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부모로서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과 영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부모성찰 간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원부모와의 아동기 경험에 의해 부모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자녀를 이해하는 신념이 형성되고, 이러한 신념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렇지만 경험에 의해 형성된 도식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변화가능

하며, 성인이 되면 건강하지 못한 행동을 알아차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부정적인 이해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어 부모 성찰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부모교육과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의 연구는 물론 다양한 매체 등을 통한 교육을 활용하며 보다 적절한 방법으로 양육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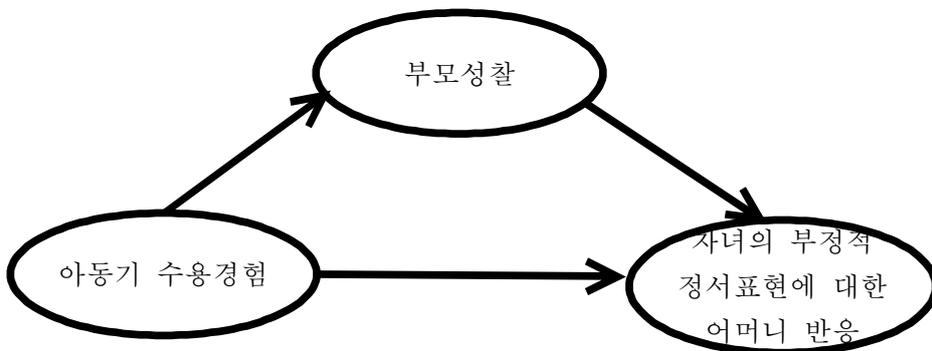
B.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의 아동기 수용경험과 영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관계에서 부모성찰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으로 이를 목적으로 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아동기 수용경험, 부모성찰, 영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간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아동기 수용경험, 부모성찰, 영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간에 매개효과가 있는가?

<그림 1> 가설모형



II. 이론적 배경

A.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과 영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과의 관계

1.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부모의 심리적 특성이나 아동기 경험과 같은 개인적 특성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장영심, 조영숙, 2014), 특히 부모의 아동기 경험이 지적되고 있다(전현진, 박성연, 1999; Simons, Bearman, Conger, & Chao, 1993). 부모의 자녀양육태도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게 되는데, Bowlby(1971)는 애착이론에서 어머니와의 양육경험을 통해 아동 자신의 기대 역할이 내면화되고 이로 인해 이후 성인이 되어 가정을 이뤘을 때 부부 관계나 부모-자녀관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즉, 부모의 양육태도는 세대 간 전이된다고 보았고, 아동기 때 자신의 어머니와의 애착경험에 따라 3세대까지 전이된다고 하였다(이정숙, 1977; Benoit, Parker, 1994). Belsky(1984)는 부모 자신이 겪었던 과거의 어린 시절 경험과 사회·문화적 배경, 그 가정의 사회·경제적 위치 등에 따라 양육태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부모의 성격특성 중 부모 자신의 아동기 경험이 자녀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녀양육행동 결정요인의 과정 모델을 제시하였다. 양육행동 결정과정 모델에서 아동의 정서 및 사회성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부모가 어린 시절 경험한 원부모의 양육방식을 강조하였고(Belsky, Pensky, 1990),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정서능력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어머니 자신의 어린 시절 원부모에 대한 애착표상 및 양육경험임이 밝혀졌다(정윤주, 2008; Cowan, Cohn, Cowan, & Pearson, 1996). Fincham(1994)은 사람이 갖는 애정과 친밀감이 주 양육자에 의한 관심과 기억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동기 경험은 성장한 후의 부부관계나 부모-자녀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원부모와의 어린 시절 경험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Geoge, Kaplan, & Main(1995)은 어머니의 아동기 양육경험으로 인해 형성된 정신적 표상이 내면화되어 성장 후 자신의 자녀나 배우자와의 관계에 투사됨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으

며, 아동기 양육경험이나 애착이 성인기까지 유지되는 주요한 이유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받아 생애 초기에 형성된 성격특성이 유지되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Tomspson, 2000), 정미경과 김영희(2003) 또한 어린 시절에 경험한 원부모의 태도나 행동은 가족이 형성되고 자녀가 생겼을 때 자녀를 대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어머니의 아동기 양육경험이 양육행동을 결정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아동기 때 원부모와 안정된 애착을 경험한 어머니는 개방적이고 다양한 정서를 자유롭게 표현하며, 어머니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지각하여 자녀와도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자녀의 욕구와 신호를 민감하게 지각하고 이해한다. 반면, 불안정 애착을 경험한 어머니는 정서표현을 과장하거나 습관적으로 부정적 정서를 보이며, 정서표현을 최소로 하고, 자녀의 신호를 무시하거나 자녀를 지배적으로 다루며 혼란된 지지 방식을 사용하여 양육한다(De Wolff & Van Ijendoorn, 1997). 어머니들은 아동기 애착 경험에 따라 자녀의 양육방식에 영향을 주게 되고 세대 간 전이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영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어머니는 유아의 정서 표현에 대해 그 정서에 대해 반응하거나, 정서관련 사건에 대해 자녀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자녀의 정서경험의 가능성을 감소 혹은 증가시키는 맥락을 선택하는 등의 정서와 관련된 다양한 양육행동을 보인다(Eisenberg et al., 1998; Fredrickson, 1998).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은 유아가 보이는 다양한 감정이나 정서의 표출에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Eisenberg 등(1998)은 아동의 정서사회화와 관련된 연구들을 종합해서 발견적 모델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은 아동의 정서경험, 정서표현, 정서의 이해와 조절, 자기-관계-세상에 대한 도식 형성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이후 자녀의 사회적 행동 또는 사회적 유능감과 상호작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보통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정서의 양극단에 있는 것으로 보기 보다는 서로 다른 차원으로 보는데(Belsky, Hsieh, 1996), 영아기의 정서 관련 최근 연구들(곽승주, 2009; 김수정, 정익중, 2015; Frankel et al., 2015; Mesman, Oster, Camras, 2012; Morris, Silk, Steinberg, Myers, & Robinson, 2007, Eisenberg, Fabes, 1994)은 서로 다른 차원의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중 부정적 정서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부모가 자녀의 긍정적 정서보다는 슬픔,

두려움, 분노, 실망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표현할 경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Siegel & Hartzell, 2004), 긍정적 정서보다 부정적 정서가 조절에 있어 정서사회화에 관한 풍부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더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Dunn, Brown, & Beardsall, 1001; Fabes, Poulin, Eisenberg, & Madden-Derdich, 2002). 또한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 패턴은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상이하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Fabes, Leonard, Kupanoff, & Martin, 2001; Fabes, Poulin, Eisenberg, & Madden-Derdich, 2002; Gottman, Katz, & Hooven, 1996; Gottman, Katz, & Hooven, 1997; Yap, Allen, Leve, & Katz, 2008),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 반응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사실상 부정적 정서는 인간이 경험하지 않고 피하고 싶은 정서이기 때문에 이를 바람직하지 않다 여기게 된다. 이에 따라 부모는 처벌과 같은 부정적인 통제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윤기봉, 박성연, 2013; Fabes et al., 2002). Engle과 McElwain(2011)은 부모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처벌적인 반응을 보이면 영아의 내재화된 문제행동이 증가한다고 하였고, Buck(1984)은 부모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비지지적인 전략을 사용하게 되면 자녀는 부정적 정서를 억제하는 것을 학습하게 되고, 이는 정서 경험과 처벌을 강하게 연합하여 부정적 정서유발 상황에서 불안이 증가된다고 하였다(Gottman et al, 1997; Gross, Levenson, 1993). 뿐만 아니라 불안이 높아짐에 따라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정계숙, 노진형, 2006; Gottman et al., 1996). 발달시기 중에서도 특히 영유아기는 부정적 정서의 표출이 많은 시기인데(Partridge, Lemer, 2007), 이 시기에 부정적 정서의 표출이 증가하는 이유는 신체발달과 함께 이동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언어발달과 함께 자기주장이 강해지면서 자율성이 높아지는 반면, 이에 대한 반응으로 부모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자녀의 자율성을 통제하고 자녀가 이를 따르기를 기대하게 되는데(Crockenberg, Litman, 1990; Kuczynski et al., 1987), Denham과 Groot(1992)은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심하게 통제하거나 처벌적인 반응은 아동의 행동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비지지적 반응을 보일 경우 유아는 정서 사회화가 적응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고 이는 다른 상호작용 맥락에서 유아가 부적절하게 행동하게 만든다(권연희, 이종희, 2005). 반면, 어머니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부모가 정서중심 또는 문제중심의 반응을 하거나 정서표현을 격려하는 것과 같은 긍정적인 반응을 할 경우, 자녀는 타인과 자신의 정서 상태를 이해하고 인식하는 능력이 발달하게 되고, 공감능

력이 높아지며, 또래 관계에서 보다 나은 대처와 높은 사회적 능력과도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된다(강희연, 강문희, 1999; 오지현, 2015; Dvidov and Grusec, 2006; Denham et al., 1997; Eisenberg et al., 1996; Eisenberg et al., 1998; Fabes et al., 2001; Fabes et al., 2002; Gottman et al., 1996). 또한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을 통해 아동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경험하며 조절하는 것을 학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표현하며 조절하는 건강한 정서발달에 도움이 된다. 이렇듯 자녀가 정서를 표출하는 상황에서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아동의 발달은 달라지게 된다.

3.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과 영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과의 관계

현재의 자신(self)은 과거부터 누적되어 온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다. 부모가 되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원부모와의 경험들을 지금-여기 현재로 가지고 와서 자녀를 양육하게 된다. 아이에게 화가 나는 것은 아이가 잘못해서라기보다 사실은 부모가 갖는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서일 때가 더 많다. 이처럼 부모가 아이를 대할 때 짜증내고, 아이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욱하고 화를 내게 되는 것은 어린 시절 부모와의 미해결된 나쁜 경험이 작동하기 때문이다(김진숙, 김지은, 연미희, 이인수, 2017). 어머니의 아동기경험과 자녀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오지현, 2016; 이미영, 이현옥 2015; 장영심, 조영숙 2014; 권영임, 2011; 성미혜, 주경숙, 2007; 이진선, 정문자, 2007; 전효정, 2003; 정혜승, 2000; 박성연, 1997; 전현진, 1996; Fincham, 1994; Belsky, Vondra, 1993; Hazan, Shaver, 1992; Simons, Whitbeck, Conger, & Melby, 1990; Sroufe, 1988; Belsky, 1984)에 의하면, 어린 시절 원부모로부터 경험한 양육방식은 부모 본인이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 Barber(1998)의 메타분석과 Sroufe(1988)의 연구에서 아동의 부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부모-자녀 관계와 부부간의 관계를 말하였고, 이 관계에는 아동의 특성보다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이 더 설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밝혀냄으로써 아동의 부적응 행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 부모의 심리적 특성이 중요함을 제기하였다. Abidin(1992)은 각자 부모들은 부모로서의 자신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아동기 애착경험에서 기인한 내적작동모델의 일부라고 보았다. 다시 말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아동기에

원부모와 경험한 애착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동기 때 친정부모와 안정된 애착을 경험한 어머니는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지각할 뿐만 아니라 개방적이며 다양한 정서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녀의 욕구와 신호를 민감하게 지각하고 이해하여 자녀와도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한다. 반면, 불안정 애착을 경험한 어머니는 정서표현을 과장하거나 습관적으로 부정적 정서를 보이며, 정서표현을 최소로 하고, 자녀의 신호를 무시하거나 자녀를 지배적으로 다루며 혼란된 지지방식을 사용하여 양육한다(De Wolff, Van Ijendoorn, 1997). 이처럼 어머니들은 아동기 애착경험에 따라 원부모에게서 받은 양육방식을 부모-자녀관계에서 반복함으로써 세대 간 전이가 나타나게 된다.

Eiden, Teti, & Com(1995)는 아동의 부적응행동과 관련된 부모-자녀관계는 주 양육자 즉, 어머니의 양육행동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현재 어머니가 보여주는 양육행동의 질은 어머니의 아동기 양육경험이 어떻게 내면화되어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말하였다. 원부모로부터 받은 아동기 경험이 독립성을 고무 받고 수용된 경험이 많은 어머니의 경우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며(권영임, 2011; 이진선, 정문자, 2007), 이러한 태도는 어머니의 정서조절 및 정서반응 태도, 양육행동 등을 통해 자녀의 정서능력, 또래관계 및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준다(권영임, 2011; 이진선, 정문자, 2007; 채진영, 이강이, 2009; 정미경, 김영희, 2003; 김은경, 하영례, 2010; 김은경, 송영혜, 2009). 반면, 원부모에게 받은 거부 경험이 많은 어머니는 자녀의 타인정서인식 능력과 자기-타인정서조절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김은경, 송영혜, 2009), 결과적으로 자신의 자녀에게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Epstein, 1983). 이처럼 원부모의 애정을 받지 못했거나 권위주의적인 양육경험을 했을 경우 성인기에 대인관계를 정상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어렵게 되며(Sroufe, 1988), 이는 유아의 위축(이순형, 이옥경, 민미희, 2006), 사회적 능력(채진영, 이강이, 2009), 학령기 아동의 부적응(정미경, 김영희, 2003)을 예측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모를 권위주의적이고 통제적 혹은 거부적으로 회고한 어머니는 우울증세가 높았으며, 이들의 자녀들 또한 부적응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Plantes, Prusoff, Brennan, Parker, 1988).

부모가 적절한 제한이나 애정 없는 허용적이고 방임적인 양육을 했다고 회고하는 어머니는 삶에서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할 때 우울증에 빠질 위험성이 증가하게 된다. 이는 어머니의 우울성향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울성향이 심한 어머니의 경우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과민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부정적 정서에 대해 처벌하거나 최소화하는 등 비지지적 반응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아동의 부정적 정서 표현을 중단시키려 할 수 있다. 우울성향은 주변 상황

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는 느낌과 더불어 무력감으로 인한 것으로(Maier, Seligman, 1976), 우울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어머니는 그렇지 않은 어머니에 비해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데 급급하게 되어 아동의 정서에 처벌적 방식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어머니가 우울할수록 여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며 벌을 주거나 아동이 경험하는 정서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정서표현 격려반응을 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윤주, 2006). 다시 말해서, 어머니가 우울성향일 때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을 받아줄 정신적 역량이 부족하게 되고, 이에 따라 처벌을 통해 이러한 표현을 신속하게 중단시킨다. 반면 어머니의 아동기 수용 경험과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감정 코칭 반응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에 의하면 어머니가 원부모의 양육방식을 수용적으로 지각할수록 자녀에게 감정코칭 반응을 많이 하게 되며, 이는 아동기 원부모와의 관계가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감정코칭 반응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오지현, 2016). 요약하면,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이 수용적일수록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감정코칭 반응과 같은 지지적 반응을 사용하고, 거부적일수록 우울성향이 증가하여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처벌적 방식을 사용하거나 신속하게 중단하는 등의 비지지적 반응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B.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과 부모성찰과의 관계

1. 부모성찰

성찰(reflection)이란 사전적으로 ‘자신의 일을 반성하며 깊이 살핌’이라는 뜻으로 자신의 마음을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자신을 점검하는 태도이다. 자기성찰은 메타인지 과정으로 마음상태를 이해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 감정, 욕구, 신념, 의도 등을 탐색해봄으로써 변화를 얻는 과정이다(Mahoney, 1997). 이렇게 자신에 대해 탐색하고 이해하는 자기성찰은 자녀 양육에 선행되어야 하며, 자녀와 관계에서 어떤 부모역할을 해야 하는지, 부모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지각이 중요하다(정옥분, 정순화, 2008). 루소(1988)도 에밀에서 “당신이 한 인간을 만들어 내려고 하기 전에 당신 자신이 인간이 되어야만 한다. 아이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본보기는 자신이어야 한다.”라고

역설하며 부모역할을 하는데 부모 자신의 심리적 성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정은숙, 이미숙, 2009).

부모가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어머니의 양육행동뿐 아니라 양육행동에 선행하는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할 때 지향하는 신념이나 사고와 같은 어머니의 인지적 특성(이인화, 박지은, 최성열, 2010; Gottman, Katz, & Hooven, 1997; Hannah, 2014; McGillicuddy-De Lisi & Sigel, 1995)이 주목되고 있다. 어머니가 양육에 대해 어떤 생각과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가 자녀의 양육과 자녀와의 상호작용의 방식을 결정하는데, 자녀의 정서에 대해서도 어머니는 고유한 신념과 가치관을 가지게 된다. 이에 대해 Gottman과 동료들(Gottman, Katz, & Hooven, 1996; Gottman et al., 1997)은 가족의 정서적 삶에 대한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정서에 관한 생각과 신념이 가지는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이와 같이 어머니의 인지적 요인인 양육신념이 자녀 양육과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는 연구들을 보면(안지영, 2001; 이은주, 민하영 2006; 이정순, 2007; Benasich, Brooks, Gunn, 1996; Johnson & Martin, 1985), ‘개인 내적인 심리상태를 이해하는 것’은 부모의 양육태도 및 자녀와 관계 변화에 중요한 의미를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Fonagy et al., 2002; Fonagy, 2010). 이러한 자기성찰은 타인과 관계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며, 이는 유아와 부모 간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Fonagy et al, 2002; Fonagy, 2010). 부모의 자기성찰 능력은 자신의 양육 경험을 이해하도록 하는 개인 내적인 능력과 더불어 개인 간의 관계에서 정서를 조절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Fonagy et al., 2002). 부모가 자기성찰을 통해 자신을 인지하는 것은 스스로 감정을 조절 및 통제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유아도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Fonagy et al., 2002; Slade, 2006). 따라서 양육과정에서 부모가 자기성찰이 없다면, 사고와 감정의 통합 결여로 이어져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양육과정에서 부모의 건강한 능력이 발휘되지 못할 수 있으므로(Fonagy, 1995; Slade, 2006), 성찰적 기능은 양육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요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국외연구에서 이루어진 자기성찰과 양육태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Fonagy(1991)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성찰기능이 영유아기 자녀와 애착 및 관계의 질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고, 어머니가 스스로 정신과정을 잘 이해하는 것은 유아를 적응적으로 발달시키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Fonagy, 1991; 1995). 또한 Slade(2006)의 연구에서는 높은 수준의 성찰적 기능을 갖춘 어머니는 자녀를 독립적인 개체로 바라보고 어머니 자신의 사고, 감정, 의도, 욕구를 자녀의 것과 분리해서 지각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녀의 욕구를 민감하게 인식 및 공감함으로써 긍정적

양육행동을 향상시키고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자녀의 인지 발달 및 행동 조절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이처럼 부모역할이라는 하나의 결정체는 부모가 되기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경험들부터 현재 마주하고 있는 상황까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현온강, 임연신, 2002; 신효미, 유미숙, 2015).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부모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부모 자신과 자녀의 내적상태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Slade, 2005)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하며(ほろいわ ひであき, 2014), 내적상태와 행동을 연관시키는 양육행동(Slade, 2005) 즉, 궁극적으로 부모-자녀 관계에서 긍정적인 행동변화를 불러올 수 있어야 한다(Allen & Fonagy, 2002).

많은 학자들이 자녀양육에서 부모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전우경, 2010; 정계숙, 노진형, 2006) 그 개념은 이론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인지이론에서는 부모 자신의 비합리적 사고의 특성을 파악하고 인지적 재구조화를 통해 부모의 성장을 도모하는 과정(오세덕, 1995)이라 설명하였고, 인간중심이론에서는 부모가 자기이해 및 수용을 하는 과정이 부모성찰이며 이를 통해 부모로서 자아실현을 하는 심리적 성숙이 이루어진다(Galinsky, Stein 1992; Rogers, 1974)고 설명한다. 이렇듯 기존 연구에서는 부모성찰을 부모 자신에 초점을 맞추어 부모로서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개념화(신효미, 유미숙, 2015; 오세덕, 1995; 정옥분, 정순화, 2008) 하였다. 하지만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정체성이므로 부모성찰을 부모의 자기성찰이란 개념으로 국한하여 규정하기엔 부족함이 있다. 부모성찰의 개념에는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부모자신을 이해하는 것과 더불어 자녀의 내적상태를 이해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부모자녀 관계에서 긍정적인 행동변화를 불러올 수 있어야 한다(Allen & Fonagy, 2002).

이와 관련하여 정신분석학자들은 생애 초기의 중요성을 연구하면서 애착이론과 접목하여 부모성찰에 대한 개념을 규명하였다. 부모성찰이란 부모-자녀 관계 안에서 자신과 자녀의 사고, 감정, 욕구, 의도와 같은 내적상태를 숙고하고, 이를 행동과 연관 지어 이해하는 것(Fonagy, Gergely, Jurist, & Target, 2005)을 의미한다. 그리고 부모성찰은 부모로서 경험하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객관화하여 사고하는 과정이 포함된다(Fonagy, 2010). 애착관계에서 발휘되는 부모성찰은 자녀의 표면적인 행동 안에 숨어 있는 뜻을 이해하도록 돕기 때문에 언어 표현이 원활하지 못한 영유아 자녀의 비언어적인 표현에도 부모가 적절한 이해와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Fonagy, Steele, & Steele, 1991). 또한 양육에서 부모가 강렬한 감정을 느낄 때에도 정서에 압도되지 않

고 자녀의 내적 경험에 대해 깊게 생각함으로써 문제 상황에서도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는 것이다(Slade, Grienenberger, Bernbach, Levy, & Locker, 2005).

2.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과 부모성찰과의 관계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 경험을 탐색해볼 때, 막연하게나마 절대로 나의 부모처럼 되지는 말아야지라고 다짐했던 암묵적 신념을 마주할 수 있다. 이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원부모에게 가졌던 분노와 미해결 감정들을 자신의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심리적 투사(projection) 과정이 일어나게 된다(김진숙, 김지은, 연미희, 이인수, 2017). 이에 정신분석과 인지치료의 대가인 제프리 영은 어린 시절의 부정적인 경험이 일생에 걸쳐 영향을 끼치게 되는 부정적인 자기개념인 삶의 덫(Life Trap)에 주목하였다. 이는 잠재 능력을 발휘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제한 신념이고, 태도와 행동을 규정짓는 내재된 정신역동이며, 때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하는 일종의 수학 공식과도 같은 도식(schema)이다. 아이는 부모가 무의식적으로 던진 폭언이나 침묵을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이는 부모가 던진 메시지를 내면화하여 자신과 타인의 관계 설정에 적용한다는 말이다. 예를 들면, 부모에게 버림받았던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국 나를 떠날거야.”와 같은 신념이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부모의 폭력은 아이를 부정적인 생각 속에 가둬버리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것은 성인이 되어도 사라지지 않는다(이후경, 2017). 또한 어머니의 심리상태는 자녀의 기질을 인식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부정적인 경험에 의한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경우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를 더욱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로 여길 수 있으며, 이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장유진, 이강이, 2014). 반대로 어머니의 심리상태가 안정적일 경우 부정적 정서를 상대적으로 더 지니고 있는 까다로운 기질의 자녀를 잘 다룰 수 있었고, 이는 반응적이며 민감한 반응으로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Mertesacker, 2004).

대상관계이론에서는 개인이 경험한 모든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타인을 대할 때 하나의 내적인 틀이 형성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내적 이미지들은 한 개인이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했던 인물과의 관계경험의 잔재라고 본다(Greenberg & Mitchell, 1983). 즉, 생애 초기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한 내적인 틀에 의해 자녀 또는 가까운 관계로부터 기대하는 내용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Bretherton, 1985; Sroufe &

Fleeson, 1986). 이러한 초기 중요한 대상과의 관계에서 발달한 정신표상은 모든 인지적이고 정서적인 노력의 기초가 되고, 이는 후에 성장하며 굳혀지며 성인기 내내 비교적 안정적으로 남게 된다(Blatt et al., 1988). 이렇듯 가족 내에서의 아동기 경험은 개인의 전반적인 생활양식과 감정양식을 반영하게 되어(김나영, 2011) 현재 경험하는 정서, 관계, 행동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전주혜, 2009). 하지만 현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동기에 경험했던 것과 상황 같은 객관적인 것보다 개인이 이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Aron, 1996; Yalom; 2005). 이처럼 어머니는 아동기에 원부모로부터 경험한 양육방식을 그대로 반복하기도 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양육하기도 하는데, 이는 아동기에 경험한 것에 의해 현재 자녀양육에 대한 신념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Belsky & Vondra, 1993).

Abidin(1992)은 부모로서의 자아에 대한 신념은 내적작동모델에 의해 자신의 아동기 경험의 영향으로 자녀를 향한 양육행동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변인이라고 하였으며, 이는 어머니가 아동기에 받은 양육에 대한 기억과 경험은 세대 간의 전이에 따라 어머니의 신념과 행동양식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Bretherton, Biringen, Ridgeway, 1991; Sroufe, Jacobvitz, Mangelsdorf, DeAngelo, Ward, 1985). 또한, 부모와의 애착경험에 의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내재화된 기대인 내적작동모델이 이후 대인관계에서의 지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Bretherton, 1985; Main, Kaplan, & Cassidy, 1985), 이러한 아동기에 부모와의 경험은 부모역할과 자녀역할에 대한 내적 표상을 형성하게 된다. 이는 성인이 되어 자녀를 두게 되었을 때 내적작동모델에 따라 부모로서의 자아를 인식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려는 심리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애착이론의 원리(George & Solomon, 1999)와 부합하는 내용이다. 또한, 원부모와의 양육경험에서 부모로서 자신의 기대역할이 내면화되고, 동일시 과정을 통해 어머니역할을 학습하여(이미영, 이현옥, 2015), 이후 자녀와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Bowlby(1971; 1982)의 연구와도 맥을 같이한다. 이와 같이 아동기 경험을 통해 형성된 어머니의 내적작동모델은 자신의 자녀나 부모역할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차이가 생긴다고 할 수 있다.

상기된 바와 같이 원가족에서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사고를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의 경험을 탐색하고 성찰하여 내가 나고 자란 원가족과의 경험이 현재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그렇지 않게 되면 아이 때문이라고 하는 분노가 사실 현재 부모인 나와 원부모 사이에서 해결

되지 않은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이 때문에 생긴 것처럼 자녀에게 책임을 돌리게 된다(김진숙, 김지은, 연미희, 이인수, 2017).

C. 부모성찰과 영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과의 관계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은 어머니의 정서표현에 대한 신념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정윤경, 박혜진, 2012)에 의해 인지적 요인의 중요성이 언급되었고, 그 중에서 부모성찰은 영유아 자녀와의 애착관계와 부모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모의 인지·심리적 요인이다. 어머니의 인지적 요인인 양육신념이 자녀 양육과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는 연구들을 보면(안지영, 2001; 이은주, 민하영 2006; 이정순, 2007; Benasich & Brooks, Gunn, 1996; Johnson & Martin, 1985), 자기성찰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행동 기저에 있는 내적인 심리상태를 이해함으로써 타인과 관계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는 유아와 부모 간의 관계에서도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Fonagy et al, 2002; Fonagy, 2010). 이처럼 부모성찰은 긍정적 양육행동에 선행하는 주요변인이며(Slade et al., 2005), 자신의 정서를 조율하도록 도와 자녀와 긍정적 애착을 형성하도록 한다(김미정, 2014; 박혜근, 2015; 최해훈, 2015; Fonagy et al., 1991). 또한 부모성찰은 부모의 성인애착 및 병리적인 문제를 중재해주는 변인이므로(Pajulo et al., 2008) 부모성찰 능력을 증진하는 치료적 개입을 통해 자녀와의 애착문제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Hannah, 2014). 즉, 영유아기 부모성찰은 양육과정에서 부모의 사고와 감정을 통합하도록 도와 부모의 건강한 능력을 발휘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Slade, 2006) 자녀와의 애착과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행 연구들(Hanes, Dunn, 1978; Lerner, Galambos, 1985)은 부모로서의 역할에 만족할수록 부모는 자녀들에게 온정적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부모역할을 만족스럽게 느끼는 부모들은 자녀에게 동기 유발적이고 애정적인 관심을 많이 보임으로써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부모역할에 만족하지 못하는 부모들은 자녀의 요구에 회피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거부적인 행동을 취해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다고 하였다(Lerner & Galambos, 1985; Simons et al., 1993).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갖고 있는 교육관이나 교육 신념은 부모-자녀관계에서 부모의

행동을 이끄는 중요한 요인으로 부모의 욕구, 가치, 신념 등이 있다고 하였다. 부모의 자녀발달에 대한 신념은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자녀의 발달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전경숙(1992)은 부모의 신념을 아동의 행동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인이라고 하였다. 이는 부모가 지닌 신념에 따라 자녀에게 기대하는 바가 달라지며, 부모의 기대가 달라짐에 따라 자녀의 발달을 지원해주는 방향이 달라져, 궁극적으로 부모가 지닌 신념에 따라 아동의 발달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부모는 아동과 그의 발달에 대해 다양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신념들은 부모의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정에서 사용하는 양육 및 교육방식을 통해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심리상태는 자녀의 기질을 인식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부정적인 경험에 의한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경우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를 더욱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로 여길 수 있으며, 이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장유진, 이강이, 2014). 반대로 어머니의 심리상태가 안정적일 경우 부정적 정서를 상대적으로 더 지니고 있는 까다로운 기질의 자녀를 잘 다룰 수 있었고, 이는 반응적이며 민감한 반응으로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Mertesacker, 2004).

이처럼 부모는 자녀에 대한 가치관과 자녀양육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어떠한 생활을 지향하는가 등을 근거로 양육행동을 결정한다(강란혜, 2000). 어머니의 아동관은 전체 발달 경로 중 유아기 자녀에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데,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아동관에 따라 자녀를 향한 양육, 교육, 돌봄은 다를 수 있음이 선행연구에 의해 입증되었다. 윤종희(2007)는 어머니의 양육신념체계와 양육행동을 탐색한 연구에서 아동관과 양육행동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부모의 아동관이 자녀 체벌 양육행동과 관련 있다는 연구와 영아기 자녀 아버지의 아동관이 자신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정순(2003), 강란혜(2000)의 연구가 같은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더해 Abidin(1992)의 연구에서는 부모 자신의 애착 역사에 따른 내적작동모델에 의해 부모로서의 자아에 대한 신념이 형성되고 이 부모 역할에 대한 신념을 중재로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끼치며, 이는 역기능적인 양육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도 설명한다. 예를 들어 아이를 야단쳤는데 이후 아이가 금방 돌아서서 웃는 얼굴로 엄마에게 밥을 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어떤 엄마는 뒤끝 없는 아이의 성격이 예뻐서 밥을 맛있게 차려주는 반면, 어떤 엄마는 먹을 것만 찾는 생각 없는 아이라며 더 혼내기도 한다. 이런 반응을 유발하는 것은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자신

의 이미지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이다. 어릴 적 자신의 행동에 부모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에 따라 형성된 자기이미지에 따라 아동기 경험이 긍정적인 부모는 아이에게 긍정적으로 반응하나, 부정적인 부모는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된다(송지희, 2012).

이처럼 부모의 양육행동이 부모의 신념과 관련이 있음을 많은 연구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Baumrind(1971)는 민주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는 부모는 자녀에게 따뜻하고 애정적이며 자녀의 요구에 민감하고 반응적인 태도와 명확한 한계를 설정하여 양육하는데 반해, 권위주의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녀의 요구에 둔감하고 완고하며 통제에 있어 직접적인 명령이나 금지 등의 방식으로 양육한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성인이 되면 건강하지 못한 행동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되는데, 우리는 이를 자각하는 순간 변화할 수 있는 희망을 볼 수 있다(이후경, 2017).

D.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과 영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관계에서 부모성찰의 매개효과

초기 중요한 대상과의 관계에서 발달한 정신표상은 모든 인지적이고 정서적인 노력의 기초가 되는데, 이는 후에 성장하며 굳혀지게 되고 성인기 내내 비교적 안정적으로 남게 된다(Blatt et al., 1988). 하지만 현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동기에 경험했던 상황보다 개인이 이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Aron, 1996; Yalom; 2005). 즉, 어머니는 아동기에 원부모로부터 경험한 양육방식을 그대로 반복하기도 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양육하기도 하는데, 이는 아동기에 경험한 것에 의해 현재 자녀양육에 대한 신념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Belsky & Vondra, 1993).

이렇듯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도 중요하지만 환경과 교육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인지적 요인 또한 중요하다. Miller(1988)는 어머니의 자녀양육행동이나 자녀발달의 근원을 규명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할 때 지향하는 양육신념이나 사고와 같은 인지적 요인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은 어머니의 정서표현에 대한 신념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정윤경, 박혜진, 2012)에 의해 인지적 요인의 중요성이 언급되었고, 그 중에서 부모성찰은 영유아 자녀와의 애착관계와 부모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모의 인지·심리적 요인이다. 자녀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부모 자신의 심

리적 건강과 부모로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부모역할에 대한 성찰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정옥분, 정순화, 2008).

부모성찰은 긍정적 양육행동에 선행하는 주요변인이며(Slade et al., 2005), 자신의 정서를 조율하도록 도와 자녀와 긍정적 애착을 형성하도록 한다(김미정, 2014; 박혜근, 2015; 최해훈, 2015; Fonagy et al., 1991). 이와 같이 많은 학자들은 영유아 부모의 양육을 돕기 위한 변인으로 부모성찰에 주목하였고, 부모의 개인적 특성이긴 하지만 교육이나 치료를 통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부모와 영유아기 부모의 부모성찰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되었다(Steele & Steele, 2008; Suchman, DeCoste, Leigh, & Borelli, 2010; Taubner et al., 2013).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교육과 치료에서 부모의 인지적 변화에 초점을 두고 양육경험에 대하여 성찰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노진형, 2005; 정계숙 외, 2014).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 자신의 양육신념이나 가치관이 자녀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인식이 선행됨으로써 진정한 부모의 양육태도 변화도 가능하다(정옥분, 정순화, 2008). 실제로 높은 수준의 성찰적 기능을 배운 어머니는 자녀를 독립적인 개체로 바라보고 어머니 자신의 사고, 감정, 의도, 욕구를 자녀와 분리해서 지각할 수 있었으며, 자녀의 욕구를 민감하게 인식 및 공감함으로써 자녀와 관계를 강화하고, 자녀의 인지 발달 및 행동 조율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하였다(Fonagy, Gergely, Jurist, Target, 2002). 따라서 개인의 경험에 대한 인식 변화는 사람과 상황을 보는 시각을 변화시켜 자신을 기점으로 주변 인물들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게 된다(오제은, 2009).

이러한 근거에 따라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이 수용적일 경우, 부모성찰 수준도 높을 것이며 이에 따라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지지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반대로 거부적일 경우 부모성찰 수준도 낮아져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비지지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A. 연구대상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및 전남 지역에 소재한 유아기관을 임의로 선정하여 연구 참여에 동의한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영유아기는 신체발달과 더불어 이동성이 증가하게 되고, 언어발달로 인해 자율성이 높아지고 자기주장이 강해지는 시기로 특히 부정적 정서의 표출이 많은 시기이며(Partridge and Lerner, 2007), 이러한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게 될 경우 영유아기 자녀들은 적응적 정서사회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뿐 아니라 다른 상호작용에서 부적절하게 행동한다(권연희, 이종희, 2005)는 선행연구에 따라 이를 근거로 연구대상을 선정하였다.

설문지는 450부를 배부하여 회수된 설문지 총 350부 중 불성실하거나 누락된 문항이 많은 28부를 제외한 322부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 = 322)

요인	구분	N(%)
자녀 성별	남	156(48.4%)
	여	164(50.9%)
자녀 연령	만 3세	92(28.6%)
	만 4세	72(22.4%)
	만 5세	87(27.0%)
	만 6세	70(21.7%)
어머니 연령	만 29세 이하	23(7.1%)
	만 30~34세	103(32.0%)
	만 35~39세	143(44.4%)
	만 40~44세	43(13.4%)
	만 45세 이상	8(2.5%)
어머니 학력	중학교 졸업	1(0.3%)
	고등학교 졸업	39(12.1%)
	전문대 졸업	75(23.3%)
	대학교 졸업	177(55.0%)
	대학원 졸업 이상	28(8.7%)
어머니 취업	전일제	177(55.0%)
	시간제	37(11.5%)
	미취업	107(33.2%)

※ 결측치에 의하여 요인간 빈도에 차이가 있음.

B. 측정도구

1. 어머니 아동기 경험

어머니의 어린 시절에 부모에 의한 양육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Epstein(1983)의 부모-또래-척도(Mother-Father-Peer Scale: MFPS)를 전현진(1996)의 연구에서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Epstein의 MFPS는 독립성 대 과잉보호차원, 수용 대 거부차원, 부모

이상화 요인과 또래 상호작용 요인의 70문항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나, 본 연구에서는 독립성 대 과잉보호차원, 수용 대 거부차원의 21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독립성 대 과잉보호 차원은 아동기 시절 부모가 독립성과 사회적 발달 등을 조장시켰는지 아니면 지나치게 과잉보호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용 대 거부차원은 부모가 아동을 수용하고 애정적으로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아동을 부담으로 느끼고 거부하였는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각 문항은 1-5점의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모의 아동기 경험은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부모에 의해 과잉보호되지 않고 독립심이 더 많이 조장되었으며, 부모로부터 거부되지 않고 더 많이 수용되었던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어머니 아동기 경험의 Cronbach's α 계수는 .71 ~ .73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요인별 문항 수, 문항 구성 그리고 Cronbach's α 계수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어머니 아동기 경험 척도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 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어머니 아동기	수용	12	1, 2, 3*, 4*, 5, 6, 7*, 11, 12*, 16*, 18*, 20	.71
경험	독립성 조장	9	8, 9, 10*, 13*, 14*, 15*, 17, 19, 21	.73

*로 표시한 문항은 역채점 문항임

2.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양식 척도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측정하기 위해 CCNES(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Scale)를 사용하였다. CCNES는 자녀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되는 상황을 제시하고 각 상황에 대한 부모의 반응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Fabes 등(1990)이 개발하고 김희정(1995)이 번안·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부모의 반응유형은 크게 지지적 반응과 비지지적 반응 2개의 범주로 나누어진다. 지지적 반응은 감정표현의 격려 반응, 정서 중심적 반응, 문제 중심적 반응의 3개의 하위 범주로 구분되며, 비지지적 반응은 최소화 반응, 처벌적 반응, 스트레스 반응의 3개의 하위 범주로 구분된다. 총 6개의 하위 범주는 각각 12문항씩 총 72문항으로, Likert식 5점 척도(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영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에 대한 Cronbach's α 계수는 최소화 반응을 제외하고 .77 ~ .82로 나타났다. 각 하위요인별 문항 수, 문항 구성 그리고 Cronbach's α 계수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척도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 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지지적 반응	감정표현의 격려반응	12	5, 11, 17, 20, 30, 35, 42, 43, 49, 57, 66, 68	.81
	정서 중심적 반응	12	6, 8, 16, 23, 25, 31, 38, 48, 54, 58, 65, 69	.78
	문제 중심적 반응	12	3, 10, 15, 24, 26, 36, 37, 44, 52, 59, 64, 67	.76
비지지적 반응	최소화 반응	12	4, 9, 14, 21, 27, 32, 40, 46, 51, 60, 61, 72	.57
	처벌적 반응	12	1, 12, 18, 19, 28, 34, 41, 47, 53, 56, 63, 71	.82
	스트레스 반응	12	2, 7, 13, 22, 29, 33, 39, 45, 50, 55, 62, 70	.77

3. 부모성찰 척도

신호미(2016)가 개발하고 그 타당도를 검증한 영유아기 부모성찰 척도를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하위요인은 자녀이해(6문항), 부모역할이해(7문항), 행동인식(7문항)이며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성내용을 살펴보면, 부모가 자녀의 내적 상태를 인식 및 이해하는 '자녀이해', 부모 역할에서 자신의 내적 상태와 부모 역할에서 자녀와 관계의 상호관련성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부모역할이해', 부모자녀 관계에서 자신의 정서 및 행동 조절, 자녀와의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인식하는 '행동인식'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평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성찰 수준이 높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부모성찰에 대한 Cronbach's α 계수는 행동인식을 제외하고 .69 ~ .78로 나타났다. 각 하위요인별 문항 수, 문항 구성 그리고 Cronbach's α 계수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부모성찰 척도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 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부모 성찰	자녀이해	6	1, 3, 5, 6, 7, 11	.78
	부모역할이해	7	2, 4, 8, 9, 10, 12, 13	.69
	행동인식	7	14, 15, 16, 17, 18, 19, 20	.14

C. 연구절차

본 조사의 설문지 배부는 각 유아기관의 책임자에게 개별연락을 통해 동의를 구한 뒤, 유아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각 유아기관의 책임자에게 설문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실시하고 설문조사를 동의한 기관에 한하여 각 기관의 만 3세 ~ 6세에 해당하는 영유아의 인원수만큼 설문지를 배포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배포는 유아기관의 각 반의 담임선생님을 통해 배부되었으며 영유아의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작성하여 각 기관에 제출한 것을 담임선생님이 회수하였고, 이를 본 연구자가 최종 회수하였다. 설문지 회수는 배포 후 1주일의 간격을 두어 해당 기관에 재방문하여 회수하였다. 설문지는 2017년 9월 첫째 주부터 배부하였고 동년 10월 셋째 주까지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 350명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거나 누락된 문항이 많은 설문지 28부를 제외한 322부의 설문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D.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3.0을 이용해 기술통계 분석과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고, AMOS 23.0을 이용하여 관련 변인들 간의 이론적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서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각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 합치도 계수인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아동기 수용경험, 영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부모 성찰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측정 변수들이 잠재 변인을 잘 구인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고, 적합도와 요인부하량을 확인하였다.

넷째, 본 연구의 연구 모형이 타당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모형을 경쟁모형과 비교하여 적합도 검증을 하였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모수치의 추정은 최대우도추정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적합도를 평가하는 일반적인 기준치로는 절대적합지수인 χ^2 , RMR과 증분적합지수인 IFI, TLI, CFI를 사용하였다.

다섯째, 최종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가 유의미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해 간접효과가 유의미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IV. 연구결과

A. 어머니의 아동기 수용경험 및 영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부모성찰의 기술통계

본 연구문제의 분석에 앞서 어머니의 아동기 수용경험 및 영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부모성찰의 기술 통계량을 알아보기 위해 각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과 최대값을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또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기 위한 가정이 충족되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를 통하여 다변량정규분포성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왜도, 첨도값이 각각 2와 7을 초과하지 않아 정규분포라는 것을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Lei & Lomax, 2005) 최대우도추정법(MLE: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어머니의 아동기 수용경험 및 영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부모성찰의 기술 통계량

	하위요인	문항 수	M(SD)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
어머니의 아동기 수용경험	수용	12	32.00(4.69)	18.00	41.00	-.311	-.291
	독립성 조장	9	42.19(5.42)	24.00	58.00	-.258	.401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지지적 반응	36	137.06(14.12)	94.00	180.00	.286	.332
	비지지적 반응	36	81.29(11.89)	40.00	119.00	-.278	1.023
부모성찰	자녀이해	6	22.57(2.91)	15.00	30.00	.123	.471
	부모역할 이해	7	26.48(3.25)	17.00	35.00	.003	-.149
	행동인식	7	20.83(2.51)	12.00	28.00	-.100	.978

B. 연구변인들의 상관관계 분석

주요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어머니의 아동기 수용경험은 매개변인인 부모성찰($r=.120, p<.05$), 부모성찰의 하위변인 중 자녀이해($r=.176, p<.01$), 종속변인인 영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중 지지적 반응($r=.298, p<.01$)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종속변인인 영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중 비지지적 반응($r=-.338, p<.01$)과는 부적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아동기 수용경험이 수용적일수록 부모성찰의 수준이 높으며, 그 중에서도 자녀이해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어머니의 아동기 수용경험이 수용적일수록 영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 중 지지적 반응을 많이 사용하며, 거부적일수록 비지지적 반응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6>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N = 322)

	1	2	2-1	2-2	2-3	3-1	3-2
1. 아동기 수용경험	1						
2. 부모성찰	.120*	1					
2-1 자녀이해	.176**	.794**	1				
2-2 부모역할 이해	.078	.815**	.568**	1			
2-3 행동인식	-.016	.426**	.013	.006	1		
3-1 지지적 반응	.298**	.479**	.496**	.343**	.132*	1	
3-2 비지지적 반응	-.338**	-.143*	-.244**	1.144**	.126*	-.366**	1
평균	74.19	69.88	22.57	26.49	20.83	137.06	81.29
표준편차	8.10	6.04	2.91	3.25	2.51	14.12	11.89

* $p < .05$, ** $p < .01$, *** $p < .001$

C. 측정모형의 타당도

이 때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적합도 지수(TLI, IFI, CFI, GFI, RMSEA)를 살펴보았다. TLI, IFI, CFI, GFI의 경우, .90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고 RMSEA의 경우 .05보다 작으면 좋은 적합도로 해석한다(Hong, 2000).

측정모형의 타당도는 구성개념과 그것을 측정하는 변수 사이의 일치성에 관한 것으로 구성개념이 관측변수에 의해서 얼마나 잘 측정되었는지를 나타낸다. 이를 검증하는 방법으로는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관측변수들의 일치성에 대한 집중타당성과 잠재변인들이 동일한 개념이 아닌 독립된 개념을 나타내고 있음을 검증하기 위한 판별타당성이 있다(우종필, 2012).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타당성들의 검증을 위해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최대우도추정법(MLE: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으로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다음의 <표 7>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절대적합지수’인 χ^2 , GFI, ‘증분적합지수’인 TLI, IFI, CFI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적합도지수를 살펴보면 GFI=.978, TLI=.846, IFI=.955, CFI=.954으로 기준값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모형의 적합도가 확보되었다.

<표 7>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N = 322)

적당한 지수	χ^2	df	χ^2/df	GFI	TLI	IFI	CFI
측정모형	21.941**	6	3.6568	.978	.885	.955	.954

* $p < .05$, ** $p < .01$, *** $p < .001$

(1) 집중타당성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은 수렴타당성이라고도 하며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관측변수들의 일치성에 대한 내용이다. 이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표준화 요인부하량과 유의성, 평균분산추출값(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개념 신뢰도(CR: Construct reliability)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요인부하량은 최소 .50 이상이 되어야 하고 .70 이상이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Kim, 2007).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행동인식을 제외한 모든 것이 <표 8>에 제시한 것과 같이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모성찰의 하위요인 중 행동인식의 요인부하량 값이 .02, 신뢰도 계수가 .14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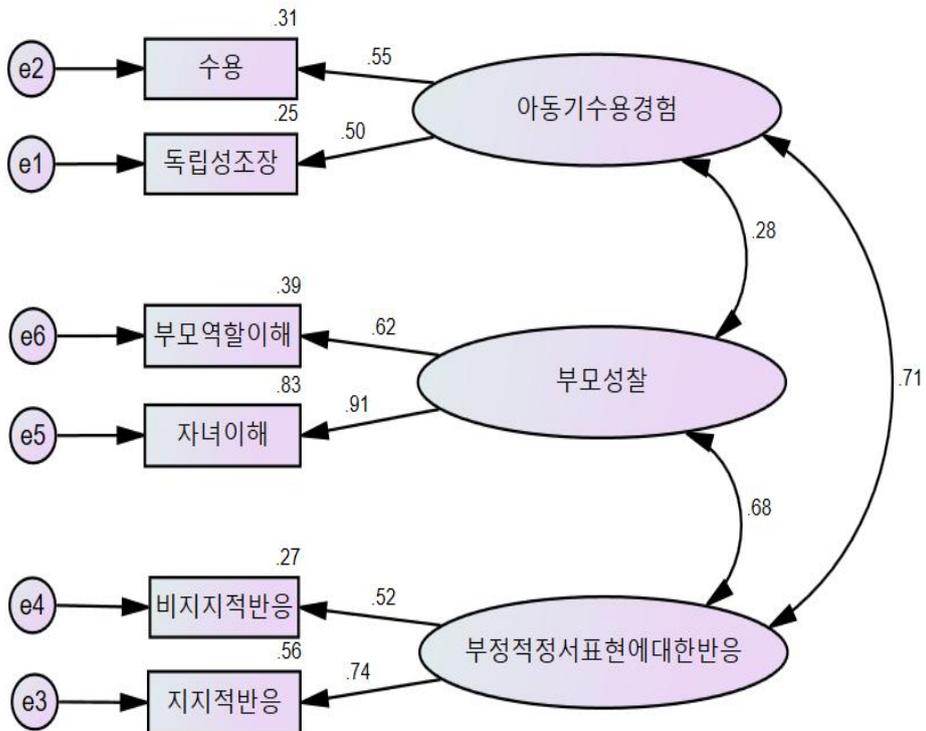
부적합하기 때문에 본 연구자는 위 하위요인을 제거한 후 구조모형을 분석하기로 판단하였다.

<표 8> 요인 부하량

		β	S.E.	t
아동기 경험	→ 수용	.555	Fix	Fix
	→ 독립성 조장	.500	.238	4.378***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	→ 지지적 반응	.746	Fix	Fix
	→ 비지지적 반응	-.522	.109	-7.003***
부모성찰	→ 자녀이해	.911	.182	7.201***
	→ 부모역할이해	.623	Fix	Fix
	→ 행동인식	.021	.075	.353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2> 확인적 요인분석



D. 연구모형 검증

연구모형은 부분매개를 경쟁모형은 완전매개를 한다는 가정 하에 분석하였으며 두 모형의 적합도는 <표 9>와 같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모두 GFI가 .90이상이고 TLI는 각각 .885과 .731, IFI는 각각 .955와 .877, CFI는 각 .954과 .875 로 나타나 연구모형의 적합도가 경쟁모형 적합도보다 더 양호한 결과를 보인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표 9>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 (N = 322)

적당한 지수	χ^2	df	χ^2/df	GFI	TLI	IFI	CFI
연구모형	21.941**	6	3.6568	.978	.885	.955	.954
경쟁모형	50.502***	7	7.2246	.952	.731	.877	.8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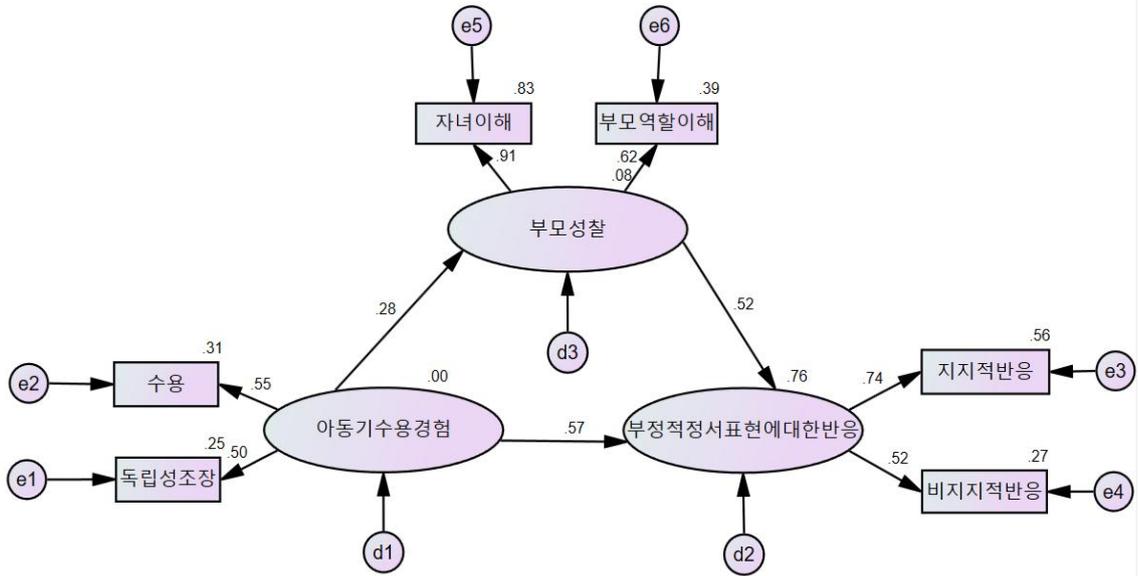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본 연구에서는 완전매개모형인 경쟁모형이 부분매개 모형인 연구모형에 포함되어 있는 등지 모델(nested model) 관계에 있기 때문에 χ^2 차이검증을 통해 모형의 적합도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각 모형들의 자유도와 χ^2 값의 증가 혹은 감소에 따른 유의도 수준을 비교하여 최종 모형을 선택하게 되는데 <표 9>를 보면 두 모형의 χ^2 값의 차가 28.561로 자유도 차이가 1일 때 $p < .05$ 수준에서 임계값인 3.84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쟁모형보다 연구모형이 더 간명하고 우수한 모델로 판명되어 최종적으로 연구모형을 채택하게 되었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비교 결과는 <표 10>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최종모형은 <그림 3>와 같다.

<표 10>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비교

구분	적합도지수	연구모형	경쟁모형	차이	직접비교 가능여부
χ^2 적합도	χ^2	21.941	50.502	28.561	비교가능
	df	6	7	1	
$p=.05$ 일 때, $df=1$, $\chi^2=3.84$					

<그림 3> 최종모형(부분매개모형)



최종모형의 경로계수는 <표 11>에 제시하였다. <표 11>과 같이 아동기 수용경험은 부모성찰($\beta = .276, p < .01$)과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beta = .568, p < .001$)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성찰은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beta = .522, p < .001$)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연구모형의 경로계수(최종모형)

(N = 322)

변수 간 경로	B	β	S.E.	C.R.	p
아동기 수용경험 → 부모성찰	.271	.276	.101	2.667	**
아동기 수용경험 →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2.205	.568	.562	3.923	***
부모성찰 →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2.068	.522	.399	5.180	***

* $p < .05$, ** $p < .01$, *** $p < .001$

E.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아동기 수용경험이 부모성찰의 매개변수를 통해 영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관계에 미치는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12>에 제시하였다.

경로의 효과성을 분해하고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평가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방법을 활용하여(우종필, 2012) 분석하였다. 매개변수의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검증, Aroian 검증, 부트스트래핑 등이 활용되는데 Sobel 검증이나 Aroian 검증은 간접효과의 표본이 정규분포를 하고 있다는 가정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러나 독립변인에서 종속변인으로 가는 경로의 값과 매개변인에서 종속변인으로 가는 경로의 값이 정규분포를 이루더라도 곱의 형태인 매개효과는 대개 정상분포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규분포를 가정하지 않으면서 보다 정확한 신뢰구간을 산출하는 부트스트래핑 방법이 매개효과의 유의도 검증에 적합하다(Shrout & Bloger, 2002). <표 12>에 제시된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간접효과를 요약하면, 어머니의 아동기 수용경험이 부모성찰을 매개하여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으로 가는 경로에서(.144, $p = .023$) 간접효과의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다시 말해, 어머니의 아동기 수용경험은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부모성찰을 매개로 하여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12> 변인들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및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잠재변수 경로			부트스트래핑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아동기 경험	→	부모성찰	.274*	.000	.274
아동기 경험	→	부모성찰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567***	.144*	.711
부모성찰	→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525***	.000	.525

* $p < .05$, ** $p < .01$, *** $p < .001$

V. 논의 및 제언

A.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아동기 수용경험이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성찰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유아기관에 있는 영유아기 자녀의 어머니 322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어머니의 아동기 수용경험이 부모성찰을 매개로 하여 영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이를 구조방정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어머니의 아동기 수용경험은 영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부모성찰을 매개로 하였을 때에도 영향을 주었고, 유의한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아동기 수용경험이 부모성찰을 매개로 영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각각 유의미한 직·간접효과가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아동기 수용경험이 영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이 부모성찰을 통해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에 미치는 간접효과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에 어머니의 아동기 수용경험, 부모성찰, 영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간에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이 수용적일수록 부모성찰 수준이 높아지고, 높은 부모성찰 수준은 영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지지적인 반응을 많이 사용하며, 비지지적 반응은 적게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어머니가 아동기에 거부적인 양육을 받았다고 지각할수록 부모성찰 수준은 낮아지며, 낮은 부모성찰 수준은 비지지적인 반응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경험한 양육경험이 세대 간 전이되어 자녀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며(Bowlby, 1971; 오지현, 2016; 이미영, 이현옥 2015; 장영심, 조영숙 2014; 권영임, 2011; 성미혜, 주경숙, 2007; 이진선, 정문자, 2007; 전효정, 2003; 정혜승, 2000; 박성연, 1997; 전현진, 1996; Fincham, 1994; Belsky & Vondra, 1993; Hazan & Shaver, 1992; Simons, Whitbeck, Conger, & Melby, 1990;

Sroufe, 1988; Belsky, 1984), 원부모로부터 받은 아동기 경험이 수용적일 경우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고(권영임, 2011; 이진선, 정문자, 2007), 거부적일 경우 자녀의 타인 정서인식 능력과 자기-타인 정서조절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김은경, 송영혜, 2009)는 결과와 맥을 같이하는 결과이다. 다시 말해, 아동기의 부정적인 경험은 어머니의 우울성향으로 이어지고, 이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과민해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부정적 정서에 대해 처벌하거나 최소화하는 등 비지지적 반응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을 중단시키려 할 수 있다(정윤주, 2006)는 결과와 부합한다. 또한 어머니가 원부모의 양육방식을 수용적으로 지각할수록 자녀에게 감정코칭 반응을 많이 하게 되며, 이는 아동기 원부모와의 관계가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감정코칭 반응에 영향을 준다(오지현, 2016)는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에 더해, 원부모와의 아동기 경험은 부모역할과 자녀역할에 대한 내적 표상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는 성인이 되어 자녀를 두게 되었을 때 내적작동모델에 따라 부모로서의 자아를 인식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려는 심리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하는 애착이론의 원리(George & Solomon, 1999)에도 상응하는 결과이다. 이처럼 원부모와의 양육경험에서 부모로서 자신의 기대역할이 내면화되고(Bowlby, 1971; 1982), 이렇게 내면화된 신념에 따라 자녀에게 기대하는 바가 달라진다. 이는 자녀의 발달을 지원해주는 방향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전경숙, 1992), 자녀의 기질을 인식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부정적인 경험에 의한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경우 부정적 정서를 상대적으로 더 지니고 있는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를 더욱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로 여겨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장유진, 이강이, 2014). 이와는 반대로 어머니의 심리상태가 안정적일 경우 까다로운 기질의 자녀를 잘 다룰 수 있어 결과적으로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반응적이며 민감한 반응으로 이어진다(Mertesacker, 2004). 정리하면, 어머니가 자녀에 대해 어떤 기대와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부모로서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따라 궁극적으로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상기된 바에 따르면, 부모성찰은 긍정적 양육행동에 선행하는 주요변인이며(Slade et al., 2005), 자신의 정서를 조율하도록 도와 자녀와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한다(김미정, 2014; 박혜근, 2015; 최해훈, 2015; Fonagy et al., 1991)는 결과, 즉 높은 수준의 성찰적 기능을 갖춘 어머니는 자녀를 독립적인 개체로 바라보고 어머니 자신의 사고,

감정, 의도, 욕구를 자녀의 것과 분리해서 지각할 수 있다는 결과(Slade, 2006)와 맥을 같이한다. 뿐만 아니라 부모역할이라는 하나의 결정체는 부모가 되기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경험들부터 현재 마주하고 있는 상황까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현은강, 임연신, 2002; 신희미, 유미숙, 2015)는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다시 말해, 부모가 부모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어린 시절의 경험을 탐색하고 성찰하여 부모 자신과 자녀의 내적상태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Slade, 2005)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하며(ほろいわ ひであき, 2014), 내적상태와 행동을 연관시키는 양육행동(Slade, 2005) 즉, 궁극적으로 부모-자녀 관계에서 긍정적인 행동변화를 불러온다(Allen & Fonagy, 2002)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어머니의 아동기 수용경험이 수용적일수록 부모성찰이 높아지고 영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중 지지적 반응을 더 사용하고 비지지적 반응은 더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아동기 수용경험이 거부적일수록 부모성찰 수준도 낮아지고 영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중 지지적 반응은 적게 사용하고 비지지적 반응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영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어머니가 지지적인 반응을 사용하게 되는 데 있어 어머니의 아동기 수용경험 뿐만 아니라 부모성찰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B. 제언

본 연구 결과는 어머니가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특히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을 위하여 다양한 개입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은 부모성찰을 매개로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결과는 부모성찰이 어머니의 경험에 따른 반응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다시 말하면, 효과적인 자녀 양육에 있어서 어머니 개인적인 특성에 대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를 바탕으로, 의의와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부모가 자녀를 효과적으로 양육하는 데 있어 양육지식 전달과 태도에 초점을 맞춘 역량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왔고, 시행되고 있지만 자녀의 양육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부모를 이해하는 개입들은 드물다. 아동기 경험과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개인적인 특성인 부모성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결과에 의하면 어머니는 아동기 경험을 통해 자녀를 이해하고, 부모역할을 이해하는 신념 및 가치관이 형성되고,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반응하게 된다. 하지만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은 이미 경험된 것으로 변화되기 어려운 반면, 아동기 경험에 의해 형성된 자녀와 부모 자신에 대한 신념과 가치관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한다(서기남, 문혁준, 2008)는 관점에 근거하여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신념 및 가치관과 태도 탐색을 통해 부모 자신을 성찰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며(신주혜, 정윤경, 2016; 박지선, 오지현, 2017), 부모성찰 수준을 높여줄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정서발달과 부모-자녀 관계가 크게 이루어지는 영유아기 시기에 세대 간 전이를 끊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어머니의 아동기 수용경험이 부모성찰을 매개로 영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 밝혀졌으나, 부모성찰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졌을 때 어머니 반응이 긍정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함이 사료된다.

셋째, 부모성찰 수준을 높여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에 앞서, 부모성찰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부모성찰 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추후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닌다.

첫째, 본 연구에서 부모성찰의 하위요인 중 행동인식 영역에서 요인부하량과 신뢰도 계수가 적합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본 연구의 매개변인으로서 부모성찰이 행동인식을 포함하지 않는 개념이어서인지, 척도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척도에 대한 타당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주 양육자를 어머니로 보고 어머니에 대해서만 다루었으나, 맞벌이가 필수로 작용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아버지의 아동기 경험에 의한 경로를 살펴 보지 못한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영향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란혜 (2000). 아버지 역할수행의 결정요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6), 15-28.
- 강희연, 강문희. (1999).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유형, 유아의 대처반응 및 또래수용간의 관계 연구. 한국아동학회지, 20(3), 171-182.
- 광승주 (2009). 가정과 어린이집에서 나타나는 2세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 및 조절에 관한 문화기술적 탐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4(6), 1-29.
- 권영임 (2011).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이 자녀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 한국아동교육학회지, 20(2), 85-96.
- 권연희, 이종희 (2005).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아동의 정서성 및 사회적행동간의 관계. 한국아동학회지, 26(6), 201-216.
- 김나영 (2001). 부모의 아동기 경험과 자녀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정 (2014). 어머니 반영기능과 영아의 애착.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정, 정익중 (2015). 0세부터 3세까지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온정성/반응성 간의 양방향적 관계. 한국아동학회지, 36(4), 1-16.
- 김양은, 하지영 (2015). 걸음마기 영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영유아보육학, 95, 25-52.
- 김은경, 하영례 (2010). 또래지위에 따른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과 정서반응태도, 유아의 정서능력 및 또래유능성에서의 차이. 한국영유아교육학회지, 14(2), 171-192.
- 김은경, 송영혜 (2008).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 정서조절양식, 정서반응태도와 유아의 정서 능력과의 관계. 한국정서·행동장애아교육학회지, 24(1), 43-64.
- 김지신, 박성연 (1997). 어머니의 전통-근대 가치관과 양육행동 및 아동의 사회적 행동. 한국아동학회지, 18(1), 125-142.
- 김진숙, 김지은, 연미희, 이인수 (2017). 나도 부모가 처음이야. 어가.
- 노진형 (2005). 부모교육을 위한 반성적 사고의 적용 연구. 영유아보육연구, 11, 85-104.
- 루소 (Rousseau, J. J.) (1988). 에밀. 김중현 옮김. 한길사.
- 박성연, 이은경, 배주희 (2011).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 및 유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

- 한 어머니의 반응유형과 유아의 정서조절전략 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6), 55-69.
- 박세환 (2016년 2월 15일).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아동학대 방지 위해 가족 교육 강화. 헤럴드 경제뉴스, 사회. 2016년 3월 5일 검색.
- 박지선, 오지현 (2017). 슬픔과 분노에 대한 상위정서철학 내용분석. 한국놀이치료학회지. 20(1), 1-25.
- 박혜근 (2015). 어머니의 반영 기능, 어머니-영아 상호작용 및 영아 애착 안정성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기남, 문혁준 (2008). 발달적으로 적합한 실제(DAP)에 관한 어머니의 신념과 아동기 양육경험,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과의 관계
- 성미혜, 주경숙 (2007). 초산모의 아동기 경험과 양육태도의 관계, 한국모자보건학회지, 11(1), 1-9.
- 성연숙 (2011). 어머니의 아동기경험 재구조화가 자녀의 정서에 대한 반응에 미치는 영향: 지시적 모래상자 프로그램으로.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지희 (2012). 엄마도 위로가 필요하다. 알에이치코리아.
- 신주혜, 정윤경 (2016). 어머니의 정서발달관련 신념이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과 아동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9(2), 21-42.
- 신호미, 유미숙 (2015).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자기성찰이 자녀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부모역할만족감과 긍정적 양육태도의 순차적 매개효과.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8(2), 115-132.
- 신호미 (2016). 영유아기 부모성찰 척도개발.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9(4), 405-422.
- 안지영 (2001).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세덕 (1995). 부모역할훈련 프로그램과 부모의 자기이해 프로그램의 효과 비교.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제은 (2009). 내면아이 치료와 주요 인물들과의 관계 재구성 경험의 해석학적 연구: 실존주의적 관점에서 논의. 상담학연구, 10(3), 1305-1325.
- 오지현 (2014).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과 아동의 정서지능간 관계: 성별에 따른 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아동학회지, 35(4), 61-78.
- 오지현 (2015).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동의 공감과 정서조절 방식의 매개효과. 한국아동학회지, 36(2), 17-37.

- 오지현 (2016). 어머니의 아동기 수용 경험, 사회적 지지와 감정코칭 반응이 아동의 정서조절 방식에 미치는 영향 - 매개된 조절효과 검증. 한국아동학회지, 37(4), 101-115.
- 윤기봉, 박성연 (2013). 걸음마기 영아의 기질적 특성에 관한 어머니의 신념과 반응. 한국아동학회지, 34(1), 103-121.
- 윤종희. (2007). 한국인의 이상적 아동관에 나타난 양육신념체계와 양육행동 탐색을 위한 생태학적 연구. 인간발달연구, 14, 65-83.
- 이미영, 이현옥 (2015).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아동기에착경험과 성격 및 양육신념이 어머니 역할수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육아지원학회지, 10(1), 169-188.
- 이순형, 이옥경, 민미희 (2007). 아동의 성별, 부모의 이혼 및 아동의 부모 양육행동 지각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181-192.
- 이은주, 민하영 (2006). 부모의 양육가치와 양육신념이 유아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5(4), 541-549.
- 이인학, 박지은, 최성열 (2010). 영아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아동교육학회지, 19(4), 81-91.
- 이정숙 (1977). 한국 가정의 훈육에 관한 세대별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순 (2003).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성역할관과 아동관이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7(4), 53-67.
- 이정순 (2007). 어머니의 양육신념 및 성취압력과 자녀의 조기·특기교육 행태와의 관계.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선, 정문자 (2007).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 부모역할 만족도 및 배우자의 부모역할 지지와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녀양육 행동 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5(5), 85-94.
- 이후경 (2017). 아프다 너무 아프다. 한스컨텐츠.
- 임연신, 현은강 (2002). 한국과 연변조선족 어머니의 부모역할 만족도 및 양육태도 비교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11), 23-37.
- 장영심, 조영숙 (2014). 어머니의 아동기경험 및 부모역할만족도가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지, 19(4), 145-163.
- 장유진, 이강이. (2014). 영아의 정서성 기질과 어머니의 부정 정서 간의 자기회귀교차지연 효과 검증. 유아교육연구, 34(3), 67-84.

- 전경숙 (1992). 부모-아동간 신념의 일치도와 아동의 학업 성취도 및 자기능력지각과의 관계. 한국아동학회지, 13(2), 251-272.
- 전우경 (2010). 부모의 자기 이해를 위한 부모교육 실천 탐색: 교류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교류분석학회지. 7(2), 75-90.
- 전주혜 (2009). 부모의 원가족 경험이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현진 (1996). 부모의 아동기경험, 인성 및 결혼만족도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전현진, 박성연 (1999). 부모의 아동기 경험, 인성 및 결혼만족도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학회지, 20(3), 153-169.
- 전효정 (2003). 어머니-유아 애착의 세대 간 전이의 메카니즘: 어머니의 내적실행모델과 자녀양육행동이 유아의 애착유형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8(3), 159-174.
- 정계숙, 노진형 (2006). 부모역할에 대한 자기반성의 부모교육을 위한 함의. 열린유아교육연구, 11(4), 79-105.
- 정계숙, 유미숙, 차지량, 최은아, 박희경, 김지연 (2014). 액션러닝 기반 부모 역량 증진 실천공동체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유아와 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국유아교육학회, 34(2), 501-531.
- 정미경, 김영희 (2003).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 우울, 부부갈등 및 양육행동과 학령기 아동의 부적응.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옥분 (2007). 정서발달과 정서지능. 서울: 학지사.
- 정옥분, 정순화 (2008). 부모교육. 서울: 학지사.
- 정윤경, 박혜진 (2012). 한국 부모의 정서발달에 대한 신념과 이에 따른 정서 관련 양육 행동.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5(2), 107-128.
- 정윤주 (2006).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방식 관련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4(11), 23-34.
- 정윤주 (2008).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 성격특성,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양육행동. 대한가정학회지, 46(3), 73-85.
- 정은숙, 이미숙. (2009).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아정체감 연구. 생활과학연구논집, 39(1), 71-98.
- 정혜승 (2000). 어머니자신의 부모애착 및 양육행동과 자녀애착과의 관계. 숙명여자대

-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진영, 이강이 (2009). 어머니의 원부모에 대한 애착표상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간발달학회지, 16(4), 95-114.
- 최해훈 (2015). 애착의 세대 간 전이에서 어머니 반영 기능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형성 (2005). 남녀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사회적 지원, 스트레스 및 아동의 기질. 한국아동학회지, 26(1), 317-328.
- 한미현 (2009). 어머니의 대상관계 수준과 양육행동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소영 (2017).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 아동관과 아동권리 존중 양육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ほろいわ ひであき (2013).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엄마와 딸. 박미정 옮김. 유아이북스.
- Abidin, R. R.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 407-412.
- Allen, J. P., & Fonagy, P. (2002). The development of mentalizing and its role in psychopathology and psychotherapy (Technical Report No.02-0048). Topeka, KS: Menninger Clinic, Research Department.
- Aron, L. (1996). *A meeting of minds: Mutuality in Psychoanalysts*. Hillsdale, NJ: AnalyticPress
- Bandura (1977). *Social Learning Theory*. New York: General Learning Press.
- Barber, B. K. (1998). Interparental conflict styles and youth problem behaviors: A two-sample replication stud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 119-132.
- Baumrind, D. (1971).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4(1p2), 1.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elsky, J., and Hsieh, K. (1996). "Infant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ality: One dimension or two". *Developmental Psychology*, 32(2), 289-298.
- Belsky, J., & Vondra, J. (1993). Development origins of parenting: Personality and

- relationship factors. In T. Luster, & L. Okagaki (Eds.),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 Hillsdale: Lawrence Erlbaum, 227-250.
- Belsky, J., 박성연 (1997). The effects of nonmaternal care on child development. *한국아동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9.
- Belsky, J., & Pensky. E. (1990). Developmental history, personality and family relationship: Toward an emergent family system. In R. A. Hinde & J. Steven-Hinde (Eds.), *Relationships within families* (pp. 193-217). Oxford, England: Oxford.
- Benasich, A. A., Brooks-Gunn, J. (1996). Maternal attitudes and knowledge of child rearing: Associations with family and child outcomes. *Child Development*, 67, 1186-1205.
- Benoit, D., & Parker, K. C. (1994). Stability and transmission of attachment across three generations. *Child development*, 65(5), 1444-1456.
- Blatt, S. J., Chevron, E. S., Quinlan, D. M., Schaffer, C. E., & Wein, S.(1988). *The assessment of qualitative and structural dimensions of object representation*(Rev. Ed.). New Haven: Yale University.
- Bowlby, J. (1971). *Attachment*(Vol.1) Attachment and loss, Harmond. swroth, Pengain Books.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II.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London: The Hogarth Press.
- Buck, R. W. (1984). *The communication of emotion*. New York: Guilford Press.
- Bretherton, I. (1985). Attachment theory: Retrospect and prospect.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209), 3-38.
- Cowan, P. A., Cohn, D. A., Cowan, C. P., & Pearson, J. L. (1996). Parents' attachment histories and children's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behaviors: Exploring family systems models of linkag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1), 53-63.
- Crockenberg, S., Litman, C. 1990. "Autonomy as competence in 2-year-olds: Maternal correlates of child defiance, compliance, and self-asser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6, 961-971.
- De Wolff, M. S., & Van IJendoorn, M. H. (1997). Sensitivity and attachment: A

- meta-analysis on parental antecedents of infant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68, 571-591.
- Denham, S. A., & Grout, I., (1992). Mothers'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coping: Topography and relations with preschoolers' social-emotional competence. *Genetic, Social, and General Psychology Monograph*, 118, 75-101.
- Dunn, J., Brown, J., & Beardsall, L. (1991). Family talk about feeling states and children's later understanding of others' emo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7(3), 448.
- Davidov, M., Grusec, J. E. (2006). Untangling the links of parental responsiveness to distress and warmth to child outcomes. *Child development*, 77(1), 44-58.
- Eiden, R. D., Teti, D. M., & Corns, K. M. (1995). Maternal working models of attachment, marital adjustment, and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Child Development*, 66, 1504-1518.
- Eisenberg, N., & Fabes, R. A. (1994). Mother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to children's temperament and anger behavior. *Merrill-Palmer Quarterly*, 40, 138-156.
- Eisenberg, N., Fabes, R. A., & Murphy, B. C. (1996). Parent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comforting behavior. *Child Development*, 67, 2227-2247.
- Eisenberg, N., Cumberland, A., & Spinard, T. L. (1998). Parental socialization of emotion. *Psychological Inquiry*, 9(4), 241-273.
- Engle, J. M., & McElwain, N. L. (2011). Parental reactions to toddlers' negative emotions and child negative emotionality as correlates of problem behavior at the age of three. *Social Development*, 20(2), 251-271.
- Epstein, S. (1983). *The mother-father-peer scale*. University of Massachusetts-Amherst.
- Erikson, E. (1950).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 Fabes, R. A., Leonard, S. A., Kupanoff, K., & Martin, C. L. (2001). Parental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with children's emotional and social responding. *Child Development*, 72(3), 907-920.
- Fabes, R. A., Poulin, R. E., Eisenberg, N., and Madden-Derdich, D. A. (2002). "The

-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scale(CCNES): Psychometric properties and relations with children's emotional competence". *Marriage & Family Review*. 34(3-4), 285-310.
- Fincham, F. D. (1994). Understanding the association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8, 123-127.
- Fonagy, P., Steele, M., & Steele, H. (1991). Maternal representations of attachment during pregnancy predict the organization of infant-mother attachment at one year. *Child Development*, 63, 880-893.
- Fonagy, P., Steele, M., Steele, H., Leigh, T., Kennedy, R., Mattoon, G., and Target, M. (1995). Attachment, the reflective self, and borderline states: The predictive specificity of the adult attachment interview and pathological emotional development. NJ: The Analytic Press.
- Fonagy, P., Gergely, G., Jurist, E., & Target, M. (2002). Affect regulation, mental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self. New York: Other Press.
- Fonagy, P., Gergely, G., Jurist, E., & Target, M. (2005). Affect regulation, mental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self. NY: Other Press.
- Fonagy, P. (2010). Attachment theory and psychoanalysis. New York: Other Press.
- Frankel, L. A., Umemura, T., Jacobvitz, D., and Hazen, N. 2015. "Marital conflict and parental responses to infantnegativeemotions: Relations with toddler emotional regulation". *Infant Behavior & Development* 40: 73-83.
- Fredrickson, B. L. (1998). What good are positive emotion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2(3), 300-319.
- Freud, S. (1933). New introductory lectures on psycho-analysis. London: Hogarth.
- Galinsky, E., Stein, P. J. (1992). The impact of human resource policies on employees: Balancing work/family life. *Journal of Family Issues*, 11, 368-383.
- George, C., Kaplan, N., & Main, M. (1995). Attachment interview for adults,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George, C., & Solomon, J. (1999). Attachment and caregiving: The caregiving behavioral system.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649-670.

- Gottman, J. M., Katz, L. F., & Hooven, C. (1996). Parental meta-emotion philosophy and the emotional life of families: Theoretical models and preliminary data.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0(3), 243-268.
- Gottman, J. M., Katz, L. F., & Hooven, C. (1997). *Meta-emotion: How families communicate emotionally*. Hillsdale, NJ, England: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Greenberg, J. R. & Mitchell, S. A.(1999). 정신분석학적 대상관계이론. 이재훈(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 Gross, J., Levenson, G. W. (1993). Emotional suppression: Physiology self-report, and expressive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970-986.
- Hanes, M. L., Dunn, S. K. (1978). *Maternal attitudes and the development of mothers and children. Mother/child father/child relationships*. Washington, DC: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 Hannah, K. (2014). Reflective functioning: A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34(2), 107-117.
- Hazan, C., Shaver, P. R. (1992). Love and work: An attachment-theoretical perspec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270-280.
- Hoffman, M. L. (1975). Developmental synthesis of affect and cogni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altruistic motiv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1(5), 607.
- Johnson, J. E., & Martin, C. (1985). Parents' beliefs and home learning environments: Effects on cognitive development. In I. E. Sigel (Ed.), *Parental belief systems: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 (pp. 25-50).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Kuczynski, L, Kochanska, G, Radke-Yarrow, M, and Girnius-Brown, O. (1987). A developmental interpretation of young children's noncomplia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3(6): 799-806.
- Lerner, J. V., Galambos, N. L. (1985). Mother role satisfaction, mother - child interaction, and child temperament: A process model. *Developmental Psychology*, 21(6), 1157.
- Mahoney, M. J. (1997). Brief moments and enduring effects: Reflections on time

- and timing in psychotherapy. Solutions, strategies, narratives. New York: Brunner.
- Maier, S. F., Seligman, M. E. (1976). Learned helplessness: Theory and evidence.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05(1), 3.
- Main, M., Kaplan, N., & Cassidy, J. (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66-104.
- McGillicuddy-De Lisi, A. V., & Sigel, I. E. (1995). Parental beliefs.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Vol. 3 (pp. 333-358).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Mesman, J., Oster, H., and Camras, L. (2012). Parental sensitivity to infant distress: what do discrete negative emotions have to do with it?.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14(4), 337-348.
- Miller, S. A. (1988). Parents beliefs about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59(2), 259-285.
- Morris, A. S., Silk, J. S., Steinberg, L., Myers, S. S., & Robinson, L. R. (2007). The role of the family context in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Social Development*, 16, 361-388.
- Pajulo, M., Suchman, N., Kalland, M., Sinkkonen, J., Helenius, H., & Mayes, L. (2008). Role of maternal reflective ability for substance abusing mothers. *Journal of Prenatal and Perinatal Psychology and Health*, 23, 13-31.
- Partridge, T., Lerner, L. V. (2007). A latent growth-cure approach to infant temperament.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6, 255-265.
- Plantes, M. M., Prusoff, B. A., Brennan, J., & Parker, g. (1988). Parental representations of depressed outpatients from a U.S.A. sample.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 15, 149-155.
- Rogers C. R. (1974). Person-centered and symbolic perspectives on social change: A schematic model. In D. A. Wexler & L. M Rice (Eds), *Innovations in person-centered therapy*. New York: Wiley.
- Siegel, D. J., & Hartzell, M. (2004). *Parenting from the inside out*. New York: Penguin.

- Simons, R. L., Beaman, J., Conger, R. D., & Chao, W. (1993). Childhood experience, conceptions of parenting, and attitudes of spouse as determinants of parental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91-106.
- Simons, R. L., Whitebeck, L. B., Conger, R. D., & Meldy, N. (1990). Husband and wife differences in determinants of parenting: A social learning and exchange model of parental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375-392.
- Slade, A., Grienenberger, J., Bernbach, E., Levy, D., & Locker, A. (2005). Maternal reflective functioning, attachment, and the transmission gap: A preliminary study.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7(3), 283-298.
- Slade, A. (2006). Reflective parenting program. *Theory and Development Psychoanalytic Inquiry*, 26(4), 640-657.
- Sroufe, L. A., & Fleeson, J. (1986). Attachment and the construction of relationships. In W. Hartup & Z. Rubin(Eds), *Relationships and development*(pp. 51-71).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Sroufe, L. A. (1988). The role of infant-caregiver attachment in development. In J. Belsky and T. Nezworski(Eds.), *Clinical implications of attachment* (pp. 18-40). NJ: Erlbaum.
- Steele, H, & Steele, M. (2008). On the origins of reflective functioning. In: Busch F, editor. *Mentalization: Theoretical considerations, research findings, and clinical implications*. New York: Taylor and Francis.
- Suchman, N., DeCoste, W., Leigh, D., & Borelli, L. (2010). Reflective functioning in mothers with drug use disorders: Implications for dyadic interactions with infants and toddlers.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12(6), 567-585.
- Taubner, S., Hörz, S., Fischer-Kern, M., Doering, S., Buchheim, A., & Zimmermann, J. (2013). Internal structure of the reflective functioning scale. *Psychology Assessment*, 25(1), 127-35.
- Thompson, R. A. (2000). The Legacy of Early Attachments. *Child Development*, 71, 145-152.
- Yalom, I. D. (2005). *Die Schopenhauer-Kur*. Btb, München.
- Yap, M. B. H., Allen, N. B., Leve, C., & Katz, L. F. (2008). Maternal meta-emotion

philosophy and socialization of adolescent affect: The moderating role of adolescent temperament.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2(5), 688-703.

부록

부록 1. 가정통신문

부록 2. 연구참여 동의서

부록 3. 설문지 안내문

부록 4.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 설문지

부록 5.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설문지

부록 6. 영유아기 부모성찰 척도

부록

부록 1. 가정통신문

설문대상자를 위한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아동상담을 전공하고 있는 석사과정 최아영입니다.

이번 설문조사의 목적은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이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에 영향을 주는데, 이를 중재하는 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습니다.

본 설문에 참여하는 데 있어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은 어떠한 것도 없으며, 설문에 응하고 싶지 않으실 경우에는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본 설문지는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고 익명으로 작성되며 연구를 위한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리며 이후 전량 폐기되어질 것입니다. 설문 내용에 의문점과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책임자의 연락처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응답은 귀중한 연구 자료가 될 것입니다. 감사의 표현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e-mail로 문의 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부록 2. 연구참여 동의서

연구 참여 동의서

연구제목

: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이 영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성찰의 조절효과

- ◆ 본인은 이 설명문을 읽었으며, 본 연구의 목적, 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 ◆ 모든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였고,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 ◆ 본인은 이 설문과 설문 참여자의 익명성이 확실히 보장되며 철저한 비밀 유지와 함께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연구참여자 성명 : _____ (서명) 2017년 월 일

설문책임자 성명 : 최 아 영 (서명) 2017년 월 일

소 속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부록 3. 설문지 안내문

안녕하세요?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에 따라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중재하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각 문항은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할 뿐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이 없으므로, 본인이 평소 가졌던 생각과 느낌에 가장 가까운 답을 하나만 골라 ✓로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선택이 어렵더라도 가장 본인과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고 특정 기호와 숫자로 처리되기 때문에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관계자나 타인과 공유되지 않는 것은 물론 익명으로 인용할 것이며,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응해주신 모든 설문지는 봉투에 동봉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 문항이라도 빠뜨리시면 여러분이 응답한 모든 내용이 무효화되기 때문에 빠짐없이 끝까지 성실하게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답은 모두 귀중한 연구 자료가 될 것입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7년 9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아동상담전공

지도 교수 : 오 지 현 교수님

연구자 : 최 아 영

● 다음은 귀하와 자녀의 개인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를 해주십시오.

1. 자녀의 성별은?

- ① 남 ② 여

2. 자녀의 연령은?

- ① 만 3세 ② 만 4세 ③ 만 5세 ④ 만 6세

3. 자녀의 출생순위

- ① 첫째 ② 둘째 ③ 셋째 이상

4. 어머니의 연령은?

- ① 만 29세 이하 ② 만 30~34세 ③ 만 35~39세
 ④ 만 40~44세 ⑤ 만 45세 이상

5. 어머니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나요?

- ① 중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전문대 졸업
 ④ 대학교 졸업 ⑤ 대학원 졸업 이상

6. 어머니의 취업 여부는?

- ① 전일제 취업 ② 시간제 취업 ③ 미취업

7. 자녀를 주로 양육하는 양육자는?

- ① 모 ② 부 ③ 조부모님 ④ 기타(어린이집, 베이비시터)

부록 4.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 척도

● 다음의 각 문항들은 어머니의 어린 시절에 관한 문항들입니다. 각 문항마다 본인을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곳에 체크해 주세요.

번호	내가 어렸을 때, 나의 <u>어머니</u> 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격려했다.					
2	독립심을 갖도록 격려해 주셨다.					
3	친구들과 의견이 다를 때 내 편을 들어주셨다.					
4	나를 과잉보호하신 편이었다.					
5	어떤 일을 내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셨다.					
6	어떤 일을 내 방식대로 해보도록 격려했다.					
7	내 또래의 친구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을 나에게서는 못하게 하셨다.					
8	가끔 내가 한 일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나를 싫어한다는 인상은 주지 않으셨다.					
9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셨다.					
10	여간해서는 기쁘게 헤드릴 수 없는 분이셨다.					
11	내가 새롭고 흥미 있는 것을 하고자 할 때 대부분 허락해주셨다.					
12	내가 다치거나 아플까봐 지나치게 걱정하셨다.					
13	대개 나에게 무뚝뚝하게 대하셨다.					
14	어떤 일을 나와 함께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15	내가 어머니 근처에 있는 것을 귀찮아하셨다.					
16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대신해서 해주시는 때가 많았다.					
17	필요할 때면 언제라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분이셨다.					
18	내가 어른이 되는 것을 서운하게 여기셨다.					
19	내가 우울할 때면 기분 좋게 해주시려고 애쓰셨다.					
20	나의 의견을 표현하도록 격려하셨다.					
21	내가 어머니에게 짐이 된다고 느끼게 하셨다.					

부록 5.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척도

● 다음은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에 대한 문항입니다. 각 상황의 6개의 항목마다 평소 어머니의 반응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체크해 주세요.

상황1) 아이가 아파서(또는 다쳐서) 친구의 생일파티에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아이가 화를 낸다면 어떻게 하나요?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화를 내는 것에 대해 꾸짖는다.					
2	아이가 떼쓰는 행동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3	아픈 것이 다 나은 뒤 친구와 함께 놀 방법을 생각하도록 돕는다.					
4	아이에게 생일파티는 다음에도 갈 수 있다고 말한다.					
5	화나고 속상한 마음을 아이가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6	아이를 위로해주며 아이와 함께 재미있는 놀이를 한다.					

상황2) 아이가 자전거를 멈추려고 하다가 자전거와 함께 넘어졌습니다. 이럴 때 아이가 운다면 귀하는 어떻게 하나요?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7	아이가 다친 것에 놀라 흥분한다.					
8	아이를 위로하고 그 사건을 잊어버릴 수 있도록 한다.					
9	아이에게 자전거를 타다보면 넘어질 수도 있다고 말한다.					

10	다음에는 어떻게 자전거를 멈춰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준다.					
11	울음을 다독여주며, 그칠 때까지 기다려준다.					
12	아이에게 계속 울면 다시는 자전거를 못 타게 하겠다고 말한다.					

상황3) 아이가 소중히 다루는 물건을 잃어 버렸습니다. 이럴 때 아이가 운다면 귀하는 어떻게 하나요?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3	아이가 부주의한 것에 화가 난다.					
14	아이에게 똑같은 것으로 사면된다고 말한다.					
15	아이에게 찾아보지 않았던 장소를 생각해보게 한다.					
16	아이의 주의를 바꿔, 그 상황을 잊도록 한다.					
17	아이에게 속상하면 울라고 말한다.					
18	네가 부주의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꾸짖는다.					

상황4) 아이가 주사 맞는 것을 무서워하며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아이가 떨면서 운다면 귀하는 어떻게 하나요?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9	아이에게 계속 울면 크리스마스 선물을 못 받는다고 말한다.					
20	아이가 자신의 두려움을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21	아이에게 주사 맞는 것이 금방 끝난다고 말한다.					
22	아이가 병원에서 울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인다.					
23	주사를 맞기 전이나 후에 아이를 위로한다.					
24	아프지 않게 맞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예: ‘몸에 힘을 주지마라’ 등).					

상황5) 아이와 함께 놀이동산에 가기로 약속하였는데,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아이가 신경질 내고 화를 낸다면 귀하는 어떻게 하나요?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5	아이와 함께 놀이동산에 갈 다른 날짜를 정해 약속하며 아이를 달랜다.					
26	집에서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본다.					
27	아이에게 별 일 아닌데 화를 낸다고 말한다.					
28	아이에게 떼쓰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앞으로 놀이동산에는 안간다고 말한다.					
29	아이의 반응 때문에 화가 나고 기분이 언짢아진다.					
30	아이가 자신의 신경질 나고 화난 감정에 대해 말해 보도록 한다.					

상황6) 아이가 친구와 함께 그룹 활동에 참여하였는데 계속 실수를 하여, 활동에 흥미를 느끼지 못해 짜증을 냅니다. 이럴 때 귀하는 어떻게 하나요?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1	아이를 편안하게 위로해 주고 아이의 기분이 나아지도록 돕는다.					
32	아이에게 그런 일로 짜증 내냐며 대수롭지 않게 말한다.					
33	아이가 실수하는 것에 내 기분이 언짢고 당혹스럽다.					
34	아이에게 네가 실수하고선 짜증을 낸다고 꾸짖는다.					
35	아이가 느낀 속상한 감정을 이야기해 보도록 격려한다.					
36	엄마와 함께 연습해서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게 하자고 말한다.					

상황7) 아이가 운동회에 참가했는데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 의식해서 지나치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귀하는 어떻게 하나요?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7	아이의 차례가 올 때까지 긴장을 풀 수 있는 일을 생각하도록 돕는다. (예: 준비 운동을 하게하고, 관중을 보지 말라고 말한다.)					
38	아이의 긴장감을 덜어주고,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준다.					
39	나 자신까지 초조해지고 긴장된다.					
40	아이에게 이런 일로 그렇게 긴장 하나며 웃어넘긴다.					
41	아이에게 네가 만약 계속 긴장한다면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고 말한다.					
42	아이가 자신의 초조하고 긴장된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격려한다.					

상황8) 아이가 친구에게서 마음에 들지 않는 생일선물을 받아 그 자리에서 바로 역력하게 실망한 표정을 짓는다면 귀하는 어떻게 하나요?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3	아이가 왜 실망하였는지에 대해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도록 격려한다.					
44	아이에게 선물의 어떠한 점이 마음이 안 드는지 묻는다.					
45	선물에 대한 아이의 실망이 신경 쓰인다.					
46	아이에게 그런 일로 시무룩해 한다며 대수롭지 않게 말한다.					
47	친구의 기분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아이를 꾸짖는다.					
48	화제를 바꿔 아이의 기분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한다.					

상황9) 아이가 무서운 TV 프로그램을 본 후 겁에 질려 잠을 자러 가지 못하고 있다면 귀하는 어떻게 하나요?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9	아이가 무엇이 무서웠는지 묻고, 다독여준다.					
50	아이를 재울 생각에 피곤해진다.					
51	아이에게 그게 뭐가 무섭냐며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한다.					
52	아이가 잠자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도록 도와준다. (예: 인형을 가지고 잔다. 불을 켜고 잔다. 등)					
53	자러가지 않으면 다시는 TV를 못 보게 하겠다고 말한다.					
54	무서운 내용을 잊어버릴 수 있도록 아이와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다.					

상황10) 아이가 놀이터에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아 울고 있습니다. 귀하는 어떻게 하나요?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5	아이가 놀림 받은 것에 대해 나 자신도 속상하고 화가 난다.					
56	아이가 우는 것에 대해 꾸짖는다.					
57	아이가 울음을 멈출 때까지 기다린 뒤, 위로해준다.					
58	아이가 즐거운 일을 생각하여 기분을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59	아이에게 자신이 왜 놀림을 받았는지 꼼꼼이 생각하도록 돕는다.					
60	아이에게 친구들과 놀다보면 그럴 수 있다고 말한다.					

상황11) 여름휴가를 가는 차 안에서 아이가 답답하고 덥다며 짜증을 냅니다. 귀하는 어떻게 하나요?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61	아이에게 어쩔 수 없다며 짜증내지 말라고 한다.					
62	아이의 짜증에 나도 같이 짜증이 난다.					
63	아이에게 계속해서 짜증을 내면 집으로 돌아 가야한다고 말한다.					
64	아이와 함께 어떻게 하면 차 안에서 재밌게 보낼 수 있는지 생각해본다.					
65	아이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며, 짜증난 감정을 잊도록 한다.					
66	아이에게 얼마나 덥고, 답답한지에 대해 묻고, 같이 공감해준다.					

상황12) 아이가 새로운 사람에게 낯을 가리는데, 집에 중요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이럴 때 아이가 구석에만 있으려하고, 칭얼거린다면 귀하는 어떻게 하나요?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67	아이가 손님들을 만날 때 겁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도록 돕는다. (예: 좋아하는 인형을 안고 만나다. 등)					
68	아이가 느끼는 두려움을 위로하고, 다독여준다.					
69	아이가 손님들과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며, 편안해질 수 있도록 돕는다.					
70	아이의 반응에 당황스럽고 불편하다.					
71	아이가 칭얼거리는 것에 대해 꾸짖는다.					
72	아이에게 그런 행동은 애기들이 하는 행동이라고 말한다.					

부록 6. 영유아기 부모성찰 척도

● 다음의 문항들은 부모 역할에서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각 문항마다 본인을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곳에 체크해 주세요.

번호	나는 자녀를 양육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자녀가 원하는 것을 알고 있다.					
2	나는 자녀에게 했던 행동들을 생각해보면, 이전에 알지 못했던 나의 기대를 알게 된다.					
3	나는 타고난 자녀의 기질을 이해하고 있다.					
4	나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짜증이 나는지 알고 있다.					
5	나는 자녀가 하는 놀이나 행동을 이해한다.					
6	나는 자녀의 기질을 고려하여 자녀의 행동을 이해한다.					
7	나는 일상생활에서 자녀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					
8	나는 무엇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지 알고 있다.					
9	나는 자녀에게 했던 행동들을 생각해보면 이전에 알지 못했던 나의 불안을 알게 된다.					
10	나는 ‘나의 부모님의 양육방식이 나의 자녀 양육 방식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이해한다.					
11	나는 자녀의 행동 뒤에 숨겨진 감정을 이해한다.					
12	내가 느끼는 불안이 나의 양육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다.					
13	나는 ‘나의 어릴 적 경험이 자녀를 이해하는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이해한다.					

14	나는 화가 나는 상황에서 자녀에게 직접 화를 내지 않고 나만의 방식으로 해소한다.					
15	나는 내가 일을 하고 있을 때, 자녀가 뭔가 해달라고 하면 하던 일을 멈추고 자녀를 먼저 돌본다.					
16	나는 내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져도 적절하게 대처한다.					
17	나는 자녀가 짜증낼 때, 짜증내는 이유를 찾아 문제를 해결한다.					
18	나는 자녀가 투정부리면 화를 참지 못한다.					
19	나는 자녀가 위험한 행동을 할 때, 쉽게 흥분해서 혼을 낸다.					
20	나는 자녀가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울 때,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다.					